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교회 지도자들의 종교권위와 사회지도력1)-

이덕주(前 감신대 교수, 한국교회사)

1. 머릿글: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준 선물 세 가지

한국에서 기독교(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20년 된 시점의 1906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평양 장로회신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단체 사진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검은 옷을 입은 선교사 교수들은 뒤편에 앉아 있고 흰 두루마기 차림의 신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앞줄에는 1년 후 한국 장로교회의 최초 한국인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될 제1회 졸업생 일곱 명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그 제1회 졸업생 가운데 길선주와 한석진, 서경조 등의 손에 들려 있는 서로 다른 물건들이 눈길을 끈다.



도교(道敎)를 수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주역이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손에는 성경(聖經)이 들려 있고, 유교(儒敎) 선비로 한학을 공부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후 독립협회 관서지부장을 역임했던 한석진의 손에는 태극기(太極旗)가 들려 있으며, 홍삼장사를 하러 만주에 갔다가 중병에 걸려 위기에 처했을 때 선교사의 소개로 서양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난 형(서상륜)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한 서경조의 손에는 양산(洋傘)이 들려 있다. 이들 초창기 신학생 세 명의 손에 들린 성경과 태극기와 양산은 기독교(개신교)가 우리 민족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을 의미하였다. 즉 성경은 민족을 구원하는 새로운 종교로서 기독교 복음을, 태극기는

1)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0호(2019년 3월 25일 발행)에 실린 “3·1운동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에 대하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위기에 처한 민족과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정신을, 그리고 양산은 서구의 과학적 기술과 학문, 문화와 문물 도입을 통한 민족의 근대화를 의미하였다. 이 세 가지 새로운 종교와 사상, 문명의 도입과 그로 인한 민족사회의 변화가 기독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다.

위 사진이 보여주듯,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는 단순한 종교의 유입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독교는 우리 민족사회에 새로운 종교적 신념과 철학적 이념, 윤리적 가치관과 물질적 세계관을 소개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는 봉건적 폐쇄사회에서 근대적 시민사회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그 결과 우리 민족 근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기능은 간과하거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기독교 선교 초기에 해당하는 대한제국 시기에 교회와 기독교 기관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진 서구 학문과 기술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촉진시켰고 같은 시기에 형성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전개한 민족계몽운동과 민족저항운동을 통해 기독교의 '애국종교'(愛國宗教, patriotic Christianity)로서 성격과 역할이 한국사회에 보다 분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런 배경에서 일제의 강제 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 인사들의 항일 민족저항운동도 한층 가열 차게 전개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3·1운동이었다.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기독교인들은 3·1운동 준비와 전개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교회와 기독교인의 피해도 상당하였다. 하지만 그런 투쟁과 희생을 통해 기독교는 일반 시민사회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하는 종교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기독교는 1920-30년대 민족주의 사회운동인 물산장려운동과 농촌계몽운동, 절제운동, 그리고 일제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한말과 일제 강점기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및 민족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행되었다. 특히 기독교는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임에도 외세(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로 인한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현실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족·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결과 '민족주의 종교'(nationalistic Christianity)로서 한국 기독교의 성격과 기능을 확립할 수 있었다. 선교 역사가 30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종교' 수준의 기독교임에도 한말과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 현장에서 이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종교 영역' 밖에서도 통하는 '사회적 지도력'(social leadership)과 그런 지도력의 근거가 되는 '종교적 권위'(religious authority)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족운동 현장에서 기독교계가 보여준 사회적 지도력은 기독교 선교 30년 역사에서 형성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일반 시민사회, 민족·사회운동 현장에서도 통하는 권위와 지도력을 바탕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3·1운동 때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3·1운동 때 극명하게 드러난 한국 기독교의 지도력의 실체와 영향을 규명하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던져 주는 역사적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계 민족대표 16인을 중심으로, 1) 준비단계에서 기독교 민족대표 구성과정과 역할, 2) 민족대표들의 종교연대, 3)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기독교 대표들의 민족의식, 4) 기독교 대표들의 투옥과 종교체험, 5) 기독교 대표들의 출옥 후 목회 및 사회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활약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지도력의 실체와 신학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2.1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1880-90년대 한국에서 기독교(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 우리 민족은 근대화와 자주독립이라는 두 가지 정치·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전자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봉건적 사회체제와 질서가 붕괴되고 이를 대체할 근대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이었고 후자는 한반도 지배를 노

리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가 확인되던 시점에 해외에서 인쇄된 한글성경과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전파된 기독교는 ‘자유와 해방과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원리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유와 평등’ 관점에서 봉건적 신분철폐와 남녀평등을 실천하였고 ‘자유와 해방’ 관점에서 외세, 특히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종교·사회적 변화를 희구하는 한국인들이 기독교 복음과 함께 선교사들을 통해 유입된 서구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현장이 되었고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 시민사회운동을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족주의 의식을 지닌 기독교 지도자들이 포진한 교회와 기독교계통 학교는 한반도 지배를 노골화하며 침략하는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이처럼 선교초기 기독교 복음 수용과 함께 근대화와 민족운동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형성, 심화된 것은 당연하였다.

한말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형성된 시점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선교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89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즉 1894-95년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뒤이은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그리고 1896년 시작된 독립협회 운동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표명되기 시작했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관여하는 교회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으려는 ‘민중계층’의 입교가 급증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봉건적 사회체제와 질서에 부정적이거나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민중계층의 입교로 한국교회 교세가 급증하였음은 물론 기독교의 사회 변혁적 성격도 강화되었다.²⁾ 그리고 진보적 개화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던 갑신정변(1882년) 실패 후 해외 망명을 떠났다가 기독교인이 되어 10년 만에 귀국한 서재필과 윤치호가 ‘만민평등’과 ‘충군애국’, ‘민족자강’ 등을 표방하며 1896년 시작한 독립협회도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표명과 참여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그리고 1899-1903년 독립협회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던 이승만과 이상재, 유성준, 이원공, 홍재기, 김정식, 김린, 신홍우 등 개화파 정치인들이 ‘옥중 개종’을 하였고 이들의 개종에 영향을 받아 남궁억과 박승봉, 민준호, 김창제, 함태영, 정교, 이준, 이회영, 이시영, 양기탁, 이동녕 등 양반·관료 출신 지식인들이 개종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와 상동교회 엠윗청년회(상동청년회)와 청년학원, 연동교회 국민교육회 등을 거점으로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³⁾ 이런 과정을 거쳐 한말의 기독교회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한말에 형성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구체적으로 항일 민족저항운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였다. 청일전쟁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영일동맹과 가쓰라-타프트밀약을 통해 서구 열강국(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양해 받은 다음 을사늑약을 체결, 국권의 상징인 외교권을 억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후 한국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항일 민족의식 표출과 구국운동이 전개되었다. 우선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하여 상동교회와 연동교회의 청년회원, 이화학당 학생들은 구국기도회를 열고 조약 체결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상동교회 엠윗청년회원들은 ‘도끼 상소운동’ 형태로 을사보약 무효상소운동을 벌인 후 ‘을사5적 척결’을 모의,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이승만과 이필주, 정순만, 박용만, 노병선, 이동휘, 이동녕, 이시영, 이회영, 안태국, 양기탁, 이상설, 이준, 최재학, 김구, 주시경, 김진호 등 소위 ‘상동파’로 호칭되는 기독교 민족운동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⁴⁾ 1907

2)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적 성격”,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 124-136.

3)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1980, pp. 61-132;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動態化 과정”,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p. 272-283; 민경배, “한국 기독교와 그 민족교회의 성립”, 『교회와 민족』,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pp. 9-18;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나라와 교회를 빛낸 이들』,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88;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2009.

4) 홍이섭, “民族運動史上에 나타난 新敎”, <기독교사상> 1965.4, P. 103;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상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79; 전택부, “상동파-그 역사와 독립꾼들”, 『토박이 신앙산맥 2』, 대한

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가 이상설과 이준, 이위종을 밀사로 파견할 때도 전덕기와 이동녕, 이회영 등 ‘상동파’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H.B. Hulbert)도 이 운동을 적극 도왔다. 그러나 헤이그밀사 파견은 대한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와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정미7조약’을 체결한 후 내정권까지 몰수하고 국권의 또 다른 상징인 구한국 부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저항하는 항일 민족운동으로 순국자결과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정동교회 교인 정재홍과 양주 교인 홍태순의 순국자결이 있었고 지방에서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던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와 김영구, 김남수 3형제, 인천지방 전도사 구연영과 구정서 부자(父子)가 의병운동을 진압하러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에 체포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공개 처형당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기독교인의 무장투쟁도 한층 강화되어 190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독교인 장인환과 전명운이 ‘친일파’ 미국인 외교관 스티븐스를 저격하였고 1909년 10월, 북만주 하얼빈에서 천주교인 안중근과 개신교인 우덕순이 ‘조선침략 1등 공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으며 그 해 12월에는 국내 서울에서 기독교인 이재명이 ‘친일파 매국노’의 상징인 이완용을 저격하였다.⁵⁾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 표현 및 민족운동 참여로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성격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한말에 형성된 기독교계 민족운동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나타난 것이 1907년 봄에 결성된 신민회(新民會)이다. 신민회는 독립협회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5년 만에 1902년 2월 귀국한 안창호가 두 달 동안 서울과 서북지역을 순회하며 양기탁과 이갑, 유동열, 이동휘, 이동녕, 전덕기, 이승훈, 양전백 등 기독교 민족운동가들과 함께 접촉하여 조직한 ‘항일 비밀결사’이다. 신민회는 겉으로 ‘무실역행’(務實力行)과 ‘문명유신’(文明惟新) 등 민족 계몽운동을 표방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족교육과 민족경제 육성을 포함하여 무관학교 설립을 통한 항일 무장투쟁까지 염두에 두었던 강력한 항일 민족운동단체였다.⁶⁾ 신민회 조직에는 서울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동파’ 민족운동 세력과 이상재와 윤치호를 중심으로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세력, 그리고 평양의 숭실중학교와 태극서관, 개성의 한영서원, 평북의 선천 신성중학교와 정주 오산학교, 의주 양실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운동 세력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신민회 조직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의주에 이르는 경기 북부와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교회와 기독교계통 학교, 기독교 기관(서점과 청년회)을 연결하는 민족운동 연락망이 구축되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그 조직과 활동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다가 강제합병 1년 후인 1911년 11월, 소위 ‘105인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 ‘데라우치총독모살미수사건’으로 그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1912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5인 중 89%(93명)가 기독교 신자로 밝혀져 기독교 민족운동 세력이 집중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105인사건’을 ‘한국교회의 핍박’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였다.⁷⁾

‘105인사건’으로 신민회를 비롯한 국내 민족운동 조직은 와해되었고 항일 민족운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8년 동안 국내 민족운동은 ‘빙하기’에 해당하는 침묵을 강요당하였다. 그렇다고 상동파와 황성기독교청년회, 신민회와 ‘105인사건’을 통해 드러난 기독교계 민족저항운동의 맥이 완전 끊어진 것은 아니다.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던 이승훈과 양전백, 이명룡, 안세환, 변린서, 강규찬, 이덕환, 서기풍, 안경록, 임치정 등은 석방 후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배경으로 목회와 사회활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 때 다시 전면에 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105인사건’으로 2년 옥고를 치르고 나온 선우혁은 1916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가 1918년 11월 여운형, 장덕수, 서병호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한 후 김규식을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고향 선천을 방문해서 ‘105인사건 동지’ 이승훈과 이명룡, 강규찬, 이덕환 등에게 해외 민족운동 소식을 전함으로 3·1운동 민족대표 규합의 단체를 제공하였다.⁸⁾ 또한 ‘105인사건’

기독교출판사, 1982; 윤준병, 『전덕기 목사와 민족운동』, 한국감리교사학회, 1990;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역사학보> 126집, 1990; 이덕주, 『상동청년 전덕기』, 공옥출판사, 2017.

5)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적 성격”, pp. 148-157; 윤경로, “1900년대 한국교회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pp. 38-47.

6)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1992, pp. 183-215.

7) 이승만, 『한국교회의 핍박』, 新韓國報社, 1913, pp. 58-59; 윤경로, “105인사건과 기독교 수난”,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pp. 285-334.

은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로 하여금 항일 민족운동 단체를 조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즉 ‘105인사건’으로 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으며 옥고를 치르는 현실을 목격한 평양의 기독교계 송의여학교 교사 황애덕과 이효덕, 그리고 송의여학교 출신으로 송현여학교 교사였던 김경희 등이 1913년 ‘송죽회’(松竹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투옥중인 독립운동가 가족 구호와 민족의식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송죽회는 처음에 교사와 재학생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으로 흩어진 졸업생까지 참여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이 되었다. 이 조직이 3·1운동 때 여성 독립운동의 지방 연락망이 되었고 3·1운동 직후 조직된 또 다른 항일 여성비밀결사 대한애국부인회(평양)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서울)의 조직 기반이 되었다.⁹⁾ 이로써 189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어 표출되기 시작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은 독립협회→상동파·황성기독교청년회→신민회→105인사건→신한청년당·송죽회로 이어지는 항일 민족운동의 흐름을 거쳐 3·1운동에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초기 부흥운동과 교회 지도력

이렇게 청일전쟁(1894년)으로부터 러일전쟁(1904년), 을사늑약(1905년)으로부터 정미조약(1907년)을 거쳐 강제 한일합병(1910년)으로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하고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즈음 한국교회는 한편으로 구국기도회를 시작으로 항일 민족저항운동에 참여하였고 다른 한편, 영적 갱신운동으로서 대부흥운동과 대전도운동(백만명구령운동)을 추진하였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1903년 8월 캐나다 출신의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의 회심과 성령체험으로 시작되었다. 내한 13년차 선교사였던 하디는 자신의 선교구역이었던 원산과 강원도 북부 지방에서 기대했던 선교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과 절망을 느끼고 있던 중 캐나다장로회와 남감리회 선교사들의 연합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선교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불신과 교만, 불성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공개 자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을 체험하였다. 하디의 ‘회심’과 ‘성령 체험’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나타났고 이후 하디가 인도한 한국인 회중 집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하디는 원산과 철원, 김화 등 자신의 선교구역 뿐 아니라 서울과 개성, 인천과 평양 등 미감리회와 북장로회 선교구역에도 가서 사경회와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그 때마다 교인들의 통회자복과 회심이 이루어졌다.¹⁰⁾ 특히 하디는 1906년 8월 평양에 가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였는데 그 때 ‘성령 체험’을 한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07년 1월, 평양의 장대현교회와 남산현교회, 숭실학교와 광성학교, 평양신학교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그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¹¹⁾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을 거쳐 전국에 확산된 초기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그 체질과 성격이 전혀 새롭게 바뀌었다. 한국교회는 부흥운동을 통해 1) 회개로 시작하여 중생(거듭남)을 거쳐 성화(성결)에 이르는 기독교의 근본적 신앙을 경험함으로써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real Christian)이 되는 법을 알았고, 2) 회개 과정에서 통렬한 죄의식을 느낀 교인들이 회심 후 새로운 도덕적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윤리적 갱신’(ethical renovation)을 이루었고, 3) 공개적인 통회자복과 보상행위를 통해 선교사와 토착교인, 교회 지도자와 일반 교인, 교인과 교인 사이에 ‘하나 되는’(union) 용서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4) 그것을 바탕으로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 사이에 교파주의를 극복하고 ‘단일 개신교회’ 수립을 향한 교회 일치, 선교 연합운동(ecumenical movement)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5) 종교적 회심과 성령체험을 한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전도’(self-propagation)에 나서고, ‘스스로 치리’(self-government)하며,

8)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개정증보판). pp. 362-364.

9) 홍우준 편, 『평창의 별 리효덕 전도사』,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pp. 38-43;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상권, 탐구당, 1973, pp. 125-126; 이덕주, 『한국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1991, pp. 218-248.

10) R.A. Hardie,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The Korea Mission Field(이하 KMF), Jan. 1914, pp. 22-24.

11) G.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Mar. 1907, pp. 33-37; J.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KMF, Aug. 1907, pp. 113-120.

‘자립적으로 교회를 운영’(self-support)하려는 열심과 노력을 보임으로 선교사의 보조와 관리에 의존하는 교회 모습을 탈피하게 되었고, 6) 부흥운동 기간 중에 토착교인들의 자발적인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날연보, 성미 등 ‘토착적인’ 신앙행위들이 한국교회의 고유한 예배와 문화 전통으로 자리를 잡음으로 기독교는 ‘서양인 종교’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종교문화와 환경에 익숙한 ‘토착적 기독교’(indigenous Church)로 뿌리를 내렸다.¹²⁾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우리 민족 문화와 정서에 ‘낯선’ 종교가 아니라 ‘익숙한’ 종교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부흥운동이 언뜻 보면 같은 시기(1903-07년)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이 전개한 항일 민족운동, 정치현실 참여운동과 서로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상반된 신앙운동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의 비정치화(非政治化)를 촉진시킨 측면도 없지 않았다. 1907년 여름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정미조약 체결, 그리고 구한국부대 해산으로 의병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김선주는 교인들과 함께 평양과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다.”며 주민들에게 무기를 들지 말고 조용히 있을 것을 권면하여 평양과 북부 지역에서는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¹³⁾ 그래서 선교사들은 부흥운동이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에서도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부흥운동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었음에도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국 내에서는 1907년 국왕의 폐위와 관련하여 소요가 일어나 순식간에 전국으로 파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보여준 행위는 칭찬할만하다.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컸던 서울과 평양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제압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국가에 대해 불만이 가장 많고 그만큼 불온한 사람들이 많았던 평양이나 북쪽에서 전혀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같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주민들을 무마시킨 영향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¹⁴⁾

그러나 부흥운동과 그로 인한 교회의 비정치화는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혼란상황에서 ‘초월적’ 종교체험으로 일관하는 부흥운동을 목격한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현실도피적인 종교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치참여를 억제해 왔던 선교사들이 부흥운동을 촉발하고 확산시킨 배후였다는 점에서 선교사들도 비판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907년 여름 구한국부대 강제해산 직후 지방에서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 서상룡과 최병헌, 송기용 등이 대한제국 정부의 선유사(宣諭使)로 임명을 받고 황해도와 충청도 지역에 나가 선무(宣撫)활동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민족주의 진영의 비판도 신랄하였다.¹⁵⁾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체질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초기 부흥운동은 민족운동과 상극(相克) 관계만 맺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않았다. 오히려 부흥운동이 기독교 민족운동과 3:1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부흥운동을 통해 윤리적 갱신을 이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위가 확보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지도력도 증대되었다. 초기 부흥운동의 ‘보편적이며 특징적인’ 현상은 공개자복 또는 통회자복으로 나타난 회개운동이었다. 종교적으로 회개는 자신의 잘못과 오류에 대한 ‘죄의식’(罪意識)에서 출발한다. 부흥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대중 앞에 고백한 후 그런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런

12)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pp. 134-153.

13) "Editorial", KMF., Oct., 1907, p. 155.

14) G.H. Jones · W.A. Noble, The Korean Revival, 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0, pp. 41-42.

15) “내각대신을 물러가오”, <대한매일신보> 1908.1.23.; 장기찬, “선유위원 최 송 양 목사에게 충고함”, <공립신보> 1908.2.19.

그 회개 과정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죄와 의(義)’에 대한 종교적 인식이 확립되었다. 선교사들은 그 점을 부흥운동의 최대 성과라고 언급하였다.

“부흥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죄와 의에 대한 의식’(sense of sin and righteousness)을 심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인들에겐 이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생소한 것이었다. 한국인들도 나름대로 죄와 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선교사]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었다. 부흥운동으로 교인들은 마음 속 깊이 죄의 사악함을 깨닫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¹⁶⁾

‘죄와 의’에 대한 종교적 인식은 윤리적 각성과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회개한 후 ‘의롭게 살려는’ 의지를 갖게 된 교인들은 새로운 윤리적, 도덕적 행위와 삶의 기준(moral standard)을 만들어 실천하였다. 이들은 절도와 강도, 증오와 허위, 시기와 질투, 간음과 간통 등 사회통념적인 죄 뿐 아니라 술과 담배, 아편, 도박, 조혼, 축첩, 노비제도 등 과거 동양의 봉건시대에 ‘죄의식’ 없이 행하던 습관과 행위들도 죄로 규정하여 멀리하였다.¹⁷⁾ 해주에서 사역하고 있던 미감리회 선교사 크리켓(C. Critchett)은 이런 회개와 윤리적 갱신을 ‘그리스도인의 양심(Christian conscience) 회복’으로 표현하였다.¹⁸⁾ 회개함으로 양심이 회복된 교인들은 현재의 죄 뿐 아니라 과거의 죄와 잘못까지도 반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 혹은 배상하고자 노력하였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열린 하디 부흥회에 참석했던 강원도 김화교회 윤승근(윤성근) 전도사의 ‘양심전’(良心錢)이 구체적인 예였다. 이에 대한 하디의 증언이다.

“그[윤승근]는 전에 매서인으로 활약하던 시절 자신을 지도하던 선교사의 돈 7달러 정도를 훔쳤다고 자백하였다. 그러서는 그만큼 돈을 반환하기란 상당히 힘든 것이었음에도 그 돈을 반환했다. 그는 별세하기[1904년] 얼마 전 내게 말하기를 원산에서 첫 번 부흥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사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2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이었을 때, 주전소(鑄錢所)에 다니던 중 월급 날 정한 봉급보다 4달러가량 더 받았던 것이 기억났다고 한다. 물론 그 때 그 돈을 그냥 받아냈지만 이제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그 돈을 내게 가져와 그 돈이 탁지부에 반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지금 나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 정부에 반환된 첫 번째 양심전(conscience money)일 것이다.”¹⁹⁾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이런 ‘양심전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회개함으로 회복된 양심에 따라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배상하려는 운동은 교회 안의 교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났다. 그 결과 부흥운동을 거친 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불신자 사회의 인식과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은 당연하였다. 회개와 윤리적 갱신을 통해 ‘도덕적 정화(淨化, purification)’를 이룬 기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일반 시민사회의 존경심을 이끌어냈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신뢰를 표하였다. 그것이 기독교의 대(對) 사회적 권위와 지도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한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사회운동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부흥운동이 교회 지도자들의 민족의식을 심화시키고 적극적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

16) "The Direct Effects of The Revival", KMF, May, 1908, p. 70.

17) J.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KMF Aug. 1907, p. 116.

18) "Hai Ju Circuit", Official Minutes and Report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7, p. 46.

19) "Hardie's Report", Annual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p. 28.

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선교사들이 의도한 바, 부흥운동이 교회의 비정치화를 촉진시킨 경우가 많았지만 이와 반대로 부흥운동 때 성령과 회심을 체험한 후 보다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운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1907년 1월 평양 숭실학교 부흥운동 때 회심 체험을 한 손정도(孫貞道)의 경우가 그러했다. 평남 강서 출신인 손정도는 23세 때(1904년) 관리등용 시험을 보러 평양에 가다가 기독교인의 전도를 받고 즉시 개종을 결심한 후 상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가 집안사당을 부수었다. 그는 그 일로 집안에서 쫓겨나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 신학문과 기독교를 배우던 중 길선주 장로가 인도하는 숭실중학교 부흥회에 참석해서 ‘통회자복’과 종교적 회심을 체험하였다.

그런데 손정도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종교적 회심과 영적 각성을 체험하는 중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민족의 구원’ 문제를 두고 기도하였다. 그는 “광명한 종교적 정화의 세례를 찾기 위하여 또는 캄캄한 조선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쉬임 없는 기도를” 하던 중 ‘민족 구원’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신비 체험’을 하였다.

“나의 앞에 신의 광명한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의 빛으로 빛났다. 인자하시고 건설하신 구주 예수께서 자애 깊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임하셨다. 나도 흐득였고 그도 느끼셨다. 이 흐득임은 슬프거나 답답해서가 아니라 넘우 감격하고 말할 수 없이 깃븐 그 극(極)에서 정화된 눈물이다. 광명을 찾은 즐거움이오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하도 애쓴 뒤에 발견한 것됨에 넘치는 눈물이다.”²⁰⁾

계속해서 손정도는 “자신 앞에 2천만 남녀 동포가 하나도 빠짐없이 죽 늘어선” 환상도 보았다. 손정도는 그것을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당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으로 해석하였다.²¹⁾ 그는 또한 새벽기도 중에 사도행전 1장 6-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 때입니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알바 아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의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 사역에 임하면 그 때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깨달음을 얻고 “국가가 있어야 할 자유 독립과 국민이 가져야 할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신앙자유와 용기로 화평한 복음을 전하며 진리와 정의로 선한 싸움을 싸워보리란 결심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였다.”²²⁾ 구령 목회를 통한 민족 구원의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이런 ‘환상 체험’과 ‘영적 각성’을 통해 ‘민족 구원’에 대한 소명의식을 얻은 손정도는 ‘전도자’(목회자)로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1908년 서울 감리교신학교에 입학, 신학수업을 받으면서 진남포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손정도는 항일 비밀결사新民회(新民會)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민족운동에 참여하였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북경을 거쳐 하얼빈에서 사역하다가 1912년 ‘가즈라암살음모사건’에 연루되어 극내로 압송된 후 진도에서 1년 유배형을 살았고 1919년 3·1운동 직전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하이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였다.²³⁾ 이처럼 손정도에게 ‘종교적 각성’과 ‘윤리적 갱신’, ‘영혼 구원’과 ‘민족 구원’,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 가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추구할 ‘공존’ 가치였다. 부흥운동이 민족운동을 촉진시킨 대표적인 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때 기독교로 개종하고 개성과 원산에서 목회하다가 3·1운동 때 민족대표로 참여한 정춘수 목사,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7년 고랑포에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고민하던 중 “참으로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며 개종한 후 개성과 홍천, 춘천을 거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역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신석구 목사도 그러한 경우였다.

이처럼 초기 부흥운동과 영적 각성운동은 한국교회의 비정치화를 촉진시킨 측면도 있지만 윤리적 갱신과 도덕적 규범을 실천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위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대(對) 사회적 지

20) 최봉측, “고 해석 손정도 목사 약전(二)”, <기독교종교교육> 1931.8, p. 64.

21) 최봉측, “고 해석 손정도 목사 약전(二)”, <기독교종교교육> 1931.8, p. 64.

22) 배형식, 『고 해석 손정도 목사 소전』, 기독교건국전도단사무소, 1949, pp. 2-3.

23) 이덕주, “도산 안창호와 해석 손정도-변함없는 신뢰와 협력, 그것을 가능케 했던 공유가치”, <도산학연구> 13집, 2010.12, pp. 89-125.

도력도 향상시켰다. 3·1운동 때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대표로 활약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다.

2.3 교회 조직과 전국 연락망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03-07년 초기 부흥운동은 교인들의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교파를 초월한 교회 일치와 선교 연합운동을 촉진시켰다. 18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독교(개신교)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한 서구의 ‘교파형’(denominational)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에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도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는데 장로교는 미국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장로회, 그리고 감리교는 미국 북감리회(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선교활동을 펼쳤다. 이들 6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는 서울과 지방도시 거점에 ‘선교부’(mission station)를 설치하고 복음전도와 교육, 의료 활동을 펼치던 중 ‘선교 중첩’과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1890년대 후반부터 ‘선교지역 분할 협정’을 맺었다. 6개 선교회는 선교지 분할협정을 맺으면서 인구 5만 이상의 서울과 평양, 원산에서는 2개 이상 선교회에서 공동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되 그 외의 지역은 1개 선교회가 배타적인 선교구역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지방에서는 교파교회의 독점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1909년 완성된 6개 선교회의 선교지역 분할 협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²⁴⁾

선교회	선교부	선교 관할지역
미국 북장로회	서울	서울 고양 파주 교하 양근 광주 과천 용인 양지 진위 양성 안성 시흥 김포 죽산 통진 지평 양주
	청주	청주 연풍 문의 영동 회인 청산 보은 청안 옥천 황간 괴산
	대구	대구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달성 고령 성주 김천 포항
	안동	안동 의성 영덕 울릉 영주 예천 상주 문경 영양
	평양	평양 안주 숙천 영유 순안 강동 자산 삼등 중화 상원 영원 덕천 개천 순천 은산 맹산 성천 강서 용강 증산
	재령	재령 봉산 수안 곡산 황주 은율 문화 장연 신천 송화 풍천 안악 평산 서흥
	선천	선천 정주 박천 의주 용천 철산 꾀산 가산 삭주 박천 구성
	강계	강계 창성 초산 위원 자성 후창
남장로회	군산	군산 대전 부여 목천 서천 보령
	전주	전주 익산 김제 남원 임실 무주 금산
	목포	목포 나주 해남 신안 영암 강진 제주
	광주	광주 광산 장성 곡성 화순
	순천	순천 여수 고흥 광양 구례
호주장로회	부산	부산 양산 동래 밀양 김해
	마산	마산 창원 창녕 함안 통영
	진주	진주 사천 고성 남해
캐나다장로회	거창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원산	원산 문천 덕원 안변 고원 영흥
	함흥	함흥 정평 함주 이원 갑산 삼수
	성진	성진 길주 명천 경성 청진 무산
미감리회	회령	회령 경흥 나진 종성 경성 온성 웅기
	서울	서울 고양 양천
	인천	인천 교동 강화 부평 용진
	수원	수원 안산 남양 여주 이천 광주 음죽 양근
	천안	천안 아산 연기 음성
공주	공주 논산 강경 예산 서산 당진 홍성 진천	

24) "Agreement on Division of Territory",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09, pp. 32-34.

	원주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충주 제천 청풍 영춘 단양 괴산
	강릉	강릉 삼척 속초 울진 평해
	영변	영변 희천 태천 북진 개천 양덕 신창
미국 남감리회	서울	서울 양주
	개성	개성 개풍
	춘천	춘천 가평 양구 인제
	철원	철원 김화 평강
	원산	원산 회양 안변 용동 고성 통천

이로써 한국교회 목회자와 전도자들은 선교회 및 선교부 단위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전도와 목회, 교육과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선교초기 내한한 선교사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취하면서도 일제 통감부 및 총독부 관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사가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터이니 정치권에서도 교회에 간섭치 말라.”는 식으로 상호 ‘불가침’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관리, 지도하는 교회나 기독교계 학교는 통감부나 총독부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적’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강제합병 이후 국내의 민족주의 정치와 사회, 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이 총독부 정책에 의해 해체되거나 감시를 당할 때 선교사를 배경으로 한 교회는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배경으로 교회나 기독교 학교 안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주의 토론이나 민족운동 논의가 가능하였다. 한국인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경계했던 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원칙이 역설적으로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논의와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 종교·사회적 배경이 되었다.²⁵⁾

이렇듯 서교 초기 선교사들의 관리와 지도를 받던 한국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우선 장로교의 4개 선교회 소속 교회들은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로회’라는 단일 정치조직을 결성하였으며 1912년에는 ‘총회’를 조직하면서 전국 지방별로 노회를 조직하였다. 그 결과 한국 장로교회는 서로 다른 선교회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단일 조직(총회)’ 하에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만 감리교회는 남북으로 나뉘어 들어온 선교회 조직을 바탕으로 별도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즉 미감리회는 1908년에, 남감리회는 1918년에 각각 ‘연회’를 조직한 후 연회 산하에 지방 교회들을 관리하는 지방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장로교는 총회→노회→시찰회→당회, 감리교는 연회→지방회→구역회로 연결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다음은 3·1운동 1년 전(1918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회 조직과 교세 통계이다.²⁶⁾

총회 및 연회	노회 및 지방회	교회(기도처 포함)	한국 목회자(전도사 포함)	교인총수	현금총액(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함북	212	8	7,124	14,406.64
	함남	198	16	6,570	14,038.84
	산서	272	19	9,228	11,553.35
	평북	444	41	34,218	67,562.31
	평남	580	78	32,751	66,602.57
	황해	387	55	19,306	46,283.17
	경기충청	205	14	8,257	13,735.80
	경북	363	30	15,331	21,030.13
	경남	332	10	10,173	12,205.84
전북	237	13	7,691	5,843.85	

25) 신기영,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pp. 33-34.

26)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계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회록> 1918, pp. 101-108; “금년 통계표”, <미감리회 조선연회 제11회 회록> 1918, p. 53; “Statistics”,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18.

	전남	255	15	10,260	9,386.20	
	합계	3,431	294	160,919	287,904.21	
미감리회	경성	33	35	4,586	3,173.00	
	인천	75	47	6,025	1,674.00	
	수원	117	47	5,610	1,080.00	
	공주	84	31	3,918	989.00	
	천안	26	12	1,186	158.00	
	평양	108	35	11,117	5,545.00	
	해주	83	26	3,997	2,217.00	
	영변	70	18	2,701	1,177.00	
	원주	33	7	967	228.00	
	강릉	33	4	937	146.00	
		합계	655	263	41,044	16,387.00
	남감리회	춘천	40	7	1,504	2,388.32
철원		30	1	802	1,221.71	
서울		22	24	1,841	2,554.97	
개성		56	9	2,985	4,865.66	
개성동		41	7	1,592	163.27	
원산동		26	5	1,221	2,300.44	
원산서		23	10	795	731.70	
		합계	238	45	10,740	15,995.54

장로교와 감리교를 합하면 전국 4,324개 교회에 한국인 목회자 602명이 교인 212,703명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장로교와 감리교 이외의 개신교인(성공회와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 형제회, 조합교회 등)을 포함해도 기독교인 총수는 25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이는 당시 한국 인구(1천 6백만)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록 큰 수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 4천여 개 교회에 출석하는 20여 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가 가능했다. 전국을 그물망처럼 연결 하던 장로교의 11개 노회와 미감리회의 10개 지방회, 남감리회의 7개 지방회는 서울과 지방을 잇는 연락망이 되었고 서울과 원산, 평양 등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선교하는 도시에서는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으로 운영되던 서울의 세브란스의학교와 연희전문학교, 협성학교(영신학교), 피어선기념성경학원, 기독교청년회와 조선예수교서회, 성서공회, 그리고 평양의 승의여학교와 기흥병원, 예수교서원, 원산의 구세병원 등 초교파 연합기구와 단체들이 초교파 연합 민족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 해외의 한인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도 국내의 민족운동 세력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에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였다. 이미 1890년대 후반부터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 만주지역에 이주한 한인 교포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들이 설립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도 한인 이주와 한인교회 설립이 이루어졌다.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중국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 이주하는 교민과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 미주지역 이민도 교회 설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즉 1902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노동이민단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하와이 현지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하와이 이민의 연장으로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로스앤젤리스, 뉴욕 등지로 확장된 미주지역 교민들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미주지역에 설립된 한인교회들은 친목회와 신민회, 공제회, 공립협회, 대동보국회, 공제회, 국민회, 동지회, 합성회, 흥사단 등 민족주의 교민단체 조직의 기반이 되었다.²⁷⁾

일본 도쿄에서도 한국인 기독교 단체와 교회가 설립되었다. 즉 1906년 황성기독교청년회의 파송을 받은 김정식은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재일한국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고 초대 총무로 취임한 후 창설 초기부터 성경공부반을 지도했는데 그것이 발전하여 1909년 도쿄한인연합교회가 되었다. 김정식

27) 김원용, 『재미 한인 오십년사』, 1959, pp. 83-178.

후임으로 1916년부터 재일한국기독교청년회 총무가 된 백남훈은 청년회 공간을 비기독교 청년 유학생들에게도 적극 공개하였고 그런 배경에서 청년회에 출입하던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재일본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그것이 국내 3·1운동의 한 기폭제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⁸⁾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 조계지’였던 중국 상하이에도 강제합병 이후 한국인 망명객과 유학생들이 몰려 들었는데 ‘상동파’에 속했던 최재학을 비롯하여 임학준, 이기룡, 홍순겸, 이흥석 등 30여 명이 1914년 11월부터 영조계에 있던 미 해군 기독교청년회관을 빌려 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엔 황성기독교청년회 간사 출신인 김종상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1916년 이후 선우혁과 여운형 등이 집회를 인도하였다.²⁹⁾ 바로 이 상하이 한인교회에 출석하던 청년회원들이 조직한 신한청년당 대표로 선발된 선우혁이 1919년 2월 귀국하여 ‘105인사건 동지’인 선천의 이승훈과 양전백, 평양의 길선주와 강규찬, 이덕환 등을 만난 것이 국내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3. 3·1운동 준비단계에서 기독교 역할

3.1 독립만세운동 준비과정

잘 알려진 대로 3·1운동 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4개조 ‘민족자결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소식을 접한 해외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 논의로 시작되었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다른 서구 연합국보다 늦게(1917년 4월) 참전한 미국은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난 후 1919년 1월 파리에서 개최될 승전 연합국의 평화강화회의를 앞두고 과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 방향에 대하여 “피지배 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다분히 독일 식민지가 많았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제안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5대 승전 연합국’ 범주에 포함되었던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한국은 처음부터 평화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약소민족 국가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런 파리 강화회의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소식은 1918년 11월부터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발행되던 <大阪毎日新聞>, <The Japan Advertiser>, 그리고 서울에서 발행되던 <每日申報>와 <京城日報>, 인천에서 발행되던 <朝鮮新報> 등을 통해 국내의 민족주의진영에 알려졌다. 이에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송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국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한편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 발표와 일본 정부에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미국 교민들은 이승만과 정한경을, 러시아 교민들은 이동휘를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고 중국 상하이에서도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칭따오에 머물러 있던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송하기 위한 경비 모금을 위해 선우혁을 국내에 파송하였다. 비록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들 미국과 러시아 교민들이 파리에 파견할 특사로 선발된 인물들도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도 2월 8일 ‘독립청년단’ 명의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 직전 선언서 인쇄용 활자를 구하러 1월 28일 경 숭계백을 서울에 파송하여 정노식과 최남선 등 국내 민족운동 세력과 접촉하도록 하였다.³⁰⁾

이처럼 국내외 민족운동 진영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파리 평화회의는 1919년 1월 12일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대 강국’이 참여한 예비회담을 거쳐 1월 18일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위

28) 유동식, 『在日本韓國基督教青年會史 1906-1990』, 재일한국기독교청년회, 1990, 149-163.

29) “上海鮮人教會史”, <기독신보> 1922.6.28-7.5.

30) “이승훈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李炳憲 編), 시사시보사 편집국, 1959, pp. 357-358; “정노식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 pp. 708-709; “송계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 pp. 710-712.

4대 강국과 일본을 포함한 45개국 대표들이 참여한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의장석에 앉아 평화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렇게 파리 평화회의 본회담이 시작된 직후, 1월 22일 새벽에 고종황제가 향년 68세로 덕수궁에서 승하하였다.³¹⁾ 총독부가 주관한 장례식 절차에 따라 고종황제의 인산일(因山日)이 1919년 3월 3일(월요일)로 정해졌다. 40일간의 ‘국장’(國葬) 기간이 시작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은 서울과 지방에서 올라온 문상객들로 붐볐다. 고종황제의 죽음을 두고 세간에 “간세배에게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본에 대한 민족적 저항감도 고조되었다.³²⁾ 그렇게 해서 파리 평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를 파송하는 동시에 고종황제 국장을 전후로 한 시기에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군중시위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파리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송하는 일은 이미 상하이 신한청년당에서 추진하고 있었기에 그 쪽에 맡기기로 하고 국내 민족운동 진영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담은 선언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파리에 파견될 특사에게 전달하고 특사 파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 배경에서 국내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독립의지를 담은 선언서 및 탄원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를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독교계 민족대표 선정 및 협의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³³⁾

1단계(1918년 11월 - 1919년 2월 10일)는 민족 대표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거나 고종황제의 승하소식 및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추진한 2·8 독립선언에 관한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품고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 작업은 서울과 선천, 두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로교의 이승훈과 감리교의 박희도는 1918년 11월말부터 1919년 1월 초순 사이에 국내외에서 간행되는 신문에 실린 파리 강화회의 및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품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훈은 중국 상하이에서 들어온 선우혁을 만나 신한청년당이 준비하는 파리 평화회의 대표자 파견운동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박희도는 기독교청년회 학생 지도부와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추진하는 독립선언운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주변의 동지를 포섭하기 시작했다. 즉 이승훈은 2월 4-5일 평북 선천에서 열린 평북노회 사경회와 노회, 전도회 모임을 통해 이명룡과 양전백과 만나 협의하였고 박희도는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기구인 서울의 기독교청년회와 협성학교(영신학교) 등을 통해 동지를 포섭하였다. 이처럼 기독교계 인사들이 독립운동 준비를 하는 동안 천도교측에서도 1월 하순부터 손병희와 권동진, 오세창, 최남선, 최린 등을 중심으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른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천도교측에서는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대중화’(大衆化)와 ‘일원화’(一元化), ‘비폭력’(非暴力)의 3대 원칙을 정하고 ‘민족대표’를 구성을 위해 “기독교측과 연락을 취해 보자.”는 최남선의 의견에 따라 이승훈과 접촉함으로써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으로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³⁴⁾

2단계(1919년 2월 11일 - 1919년 2월 21일)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지를 규합하며 독립운동 내용과 방법론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승훈은 2월 11일 천도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송진우와 최남선, 최린 등을 만나 천도교와 기독교 연합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월 13일 선천으로 돌아와 이명룡과 양전백 외에 유여대, 김병조 등 평북노회 소속 목사들을 포섭하였고 다시 상경하는 중에 평양에 들러 신흥식과 길신주, 안세환을 포섭하였으며 서울에서 함태영과 이갑성을 포섭하였다. 신흥식 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로교 인사들이었다. 이후 이승훈은 서울에 머물면서 감리교 인사들과 천도교 인사들을 접촉하며 ‘연합전선’을 확대시켜 나갔다. 감리교측은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미감리회의 박희도는 이승훈과 천도교측 최린을 만나 연합운동 정보를 듣고 같은 교회(미감리회) 소속인 김창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박동완, 그리고 해주에서 올라온 최성모를 포섭했고 최성모는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를 포섭했다. 박희도는 남감리회의 정춘수와 오화영과도 접촉하며 정보를 공유하였고 YMCA 조직을 통해 김원벽과 강기덕 등 학생 운동권과

31) “李太王 殿下 昇遐”, <기독신보> 1919.1.29.

32) “이갑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 p. 295; 최린, “자서전(약력)”, <한국사상> 4호, 일신사, 1962.8, p. 173.

33)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종교연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9, pp. 136이하.

34) “최린 자서전”, <한국사상> 4집, 일신사, 1962, 166-167; 김도태, 『남강 이승훈전』, 문교사, 1959, pp. 275-276.

도 협의하였다. 이렇게 세 갈래로 시작된 기독교측 논의는 2월 17일 서울 수창동 박희도 사무실에서 이승훈과 박희도, 정춘수, 오화영, 신홍식 등이 회합함으로써 기독교 연합전선이 구축되었다. 이후 기독교측 대표자들은 박희도와 이갑성, 함태영 등의 사무실 혹은 집에 모여 1) 천도교와의 합작 문제, 2) 운동 방법론(독립선언이나 독립청원이나) 문제, 3) 지방 대표자 포섭, 4) 파리 평화회의 대표자 파견, 5) 일본 정부와 의회에 청원할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기독교측을 대표하여 이승훈은 천도교측(최남선과 최린)과 합작을 협의하였고 천도교측으로부터 운동자금 5천원을 빌려 와 박희도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조치하였다.³⁵⁾ 이로써 천도교와 기독교 합작은 되돌릴 수 없는 원칙이 되었고 그에 따라 운동 방법론도 ‘독립선언론’으로 방향을 잡았다.

3단계(1919년 2월 22일 - 1919년 3월 1일)는 서울과 지방, 종교대표와 학생대표, 국내외 운동 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며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단계였다. 천도교측(불교 포함)과의 합작 문제를 매듭지은 기독교측 인사들은 서울 및 지방에서 선언서 및 청원서에 서명할 기독교측 민족대표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안세환과 신홍식은 평안남도 평양, 유여대는 평안북도 의주, 이갑성은 경상도 부산과 마산과 대구, 정춘수는 함경도 원산, 오화영은 개성, 김세환은 충청도와 경기도를 맡아 지방 교회 대표들을 접촉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독립운동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박희도와 이갑성은 기독교청년회와 협성학교, 세브란스병원을 매개로 해서 김원벽과 강기덕 등 서울 시내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과 접촉하며 학생 운동권과 연대를 모색했다. 처음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려고 했으나 종교계 지도자들과 접촉하면서 계획을 바꾸어 독립선언서 배포와 2차 독립운동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기독교측에서는 천도교측에서 준비, 인쇄한 독립선언서를 지방으로 배포하는 책임을 맡았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해외로 대표자를 파송하는 일도 기독교측이 맡았다. 즉 현순을 중국 상하이로 파송하여 신한청년당이 추진하는 파리 평화회의 대표자 파견을 돕도록 하였고 안세환을 일본 도쿄로 파송하여 일본 정부와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런 준비 작업을 거쳐 ‘국장 2일 전인’ 3월 1일에 서울과 평양, 원산, 개성, 선천, 의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3.2 기독교 민족대표 16인 선정과정

3·1운동 준비단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독립선언서> 작성과 이 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 선정이었다. 이 작업은 천도교측에서 주도하고 기독교측이 참여,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천도교측 논의를 시작한 손병희와 권동진, 오세창, 최린, 최남선 등은 이 운동을 기획하면서 대중화와 일원화, 비폭력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그리하여 천도교측 지도부 인사들은 대중화와 일원화 원칙에 의거하여 이 운동을 천도교만의 운동으로 전개하지 않고 당시 ‘조선 민족’을 포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민족대표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1910년 강제합병으로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기구나 조직, 단체는 전무하였다. 결국 개인이 민족을 대표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서 천도교측 인사들이 ‘민족대표’로 추대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첫 번째 인물들이 구한말 정치 관료와 사회단체에서 지도자로 활약했던 ‘원로급’ 인사들이었다. 즉 “구한국 대신으로서 국변(國變) 후에 일본작위를 고사하고 그 성품이 고결한 사람으로” 알려진 윤용구(尹用求), “을사보호 조약시 참정대신 즉 총리대신으로 그 조약을 한사(限死) 반대한 사람으로” 알려진 한규설(韓圭高), “소위 개화당 영수로서 갑신정변 후에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여 일인(日人)의 침략을 반대하다가 제주도에 귀양사리까지 한 저명한 귀족 혁명가”로 알려진 박영효(朴泳孝), 그리고 “과거 광무연간(光武年間)에 독립협회장으로서 특히 미국인간(美國人間)에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윤치호(尹致昊) 등이었다.³⁶⁾ 그러나 이들 원로들과의 접촉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천도교측 지도부 인사들은 종교계로 눈을 돌렸다. 최린의 증언이다.

35) “노현용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674; “손병희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93; “이승훈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342-343.

36) “최린 자서전”, p. 166.

“국변 이후로 각종의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회단체는 물론이요 심지어 학술단체까지도 모조리 해산을 당하였고 다만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단체만이 간신히 잔명(殘命)을 보존하였을 뿐이었다....민족을 대표함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슨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결사도 없고 오직 종교단체뿐이니 천도교만이 아니라 예수교회, 불교회 등의 대표를 망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작정하였다.”³⁷⁾

이처럼 천도교측은 처음부터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가 연대하는 ‘3대 교단 동맹’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연대 대상으로 기독교를 지목했다. 즉 천도교측 운동 논의가 시작되었던 1919년 1월 말 최린과 오세창, 권동진 등은 “예수교 측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1천 6백명 가량이나 되는 목사 장로 중에 4, 5백 명은 동지가 된다고 하며 그 주동자는 이승훈이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승훈과 친분이 있던 최남선과 송진우를 통해 정주 오산학교 졸업생 김도태를 이승훈에게 보내 연락을 취하였던 것이다.³⁸⁾ 마침 그 무렵 같은 평북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과 독립운동에 관해 논의하며 마침 중국 상하이에서 들어온 선우혁을 통해 해외 독립운동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이승훈도 최남선의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천도교측 인사들과 만나 연대에 동의함으로써 천도교-기독교 연합운동이 성사되었다. 이후 천도교측은 불교측 인사들과도 접촉을 시도하여 한용운과 백용성 등 불교 승려 2명이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³⁹⁾ 이런 천도교측의 불교 접촉과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3·1운동에서 기독교-천도교-불교 연대가 이루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족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없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선천의 양전백 목사는 재판과정에서 2월 12일 서울에 올라가 천도교측과 처음 접촉을 시도하고 내려온 이승훈으로부터 “예수교와 천도교와 각 학교 일반사회가 합동하여 총독부와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을 허락하여 달라고 청원할 것이라, 1회는 50인 중 천도교 28인, 야소교 20인, 기타 2인으로, 2회는 100인으로, 계속 10회까지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⁴⁰⁾ 2월 23일에는 평양에서 함태영으로부터 “금번 50인이 총독부에 청원할 것이라.”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⁴¹⁾ 또한 이갑성은 2월 19일 자기 집에서 모인 기독교측 회합에 대해 “독립청원을 우리들만으로 하는가 또는 우리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키자고 하니 일동은 자기들만은 할 수 없으니 각 도에서 대표자로 할 유력한 사람 2, 3명씩을 선택하여 그런 사람들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였다.”고 증언하여 기독교측만으로도 전국적으로 30-40명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예상하고 지방 대표자 포섭에 나섰음을 밝혔다.⁴²⁾

이처럼 논의 초반에는 (천도교와 기독교 합하여) 적게는 50명, 많게는 1백 명까지 예상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수를 반으로 줄여 천도교와 기독교 대표를 합쳐 30명 수준으로 확정된 것은 2월 20일 이승훈과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 천도교측 대표와 만나 협의한 결과였다. 이승훈은 이 회합의 결과를 2월 21일 기독교측 대표자 모임에서 “최초에는 많은 사람으로 선언서를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시일이 절박하므로 예수교에서 15-16명, 천도교에서 15-16명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낼 일”을 결정했음을 밝혔다.⁴³⁾ 천도교측의 권동진 역시 “2월 20일 오전 10시 최린 오세창 이승훈이 나의 집으로 왔었는데 동지는 천도교 예수교 각 15인씩 하자고 최린이 말하였고 불교측에서도 2인을 가입시켜 도합 32인으로 한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⁴⁾ 이렇듯 2월 20일 이승훈과 천도교측 대

37) “최린 자서전”, pp. 164-165.

38) “권동진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188.

39) 최린은 2월 24일 설악산 신흥사 승려로서 서울에 올라 와 <唯心>이란 불교잡지를 간행하고 있던 한용운을 만나 민족대표 참여를 권하였고 한용운은 2월 27일 해인사 승려로서 서울에 올라와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백용성에게 권하여 민족대표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최린 자서전”, pp. 171-172.

40) “양전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260.

41) “양전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261.

42) “이갑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291.

43) “이승훈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351.

표자들과 회합에서 비로소 기독교와 천도교 각 15명, 여기에 최린이 개인적으로 접촉해 왔던 불교 대표 2명을 포함하여 민족대표자를 3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주 손병희를 정점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천도교에서는 15명 대표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손병희의 위임을 받은 최린과 권동진, 오세창 등이 대표자 인선 및 포섭에 나서 5일 만에 15명의 명단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측 입장은 달랐다. 단일 교파, 단일 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훈이 속한 장로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라는 단일 교단에 총회와 노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감리교는 박희도가 속한 미감리회와 정춘수와 오화영이 속한 남감리회가 별도 연회와 지방회로 조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측에 할당된 15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문제였다. 기독교측 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대표자 포섭 작업에 나섰다. 박희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승훈은 다시 이갑성 집에 와서 전날 밤 집합한 자 전부가 모인 가운데서 천도교측은 합동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일과 그 선언서에 동교인 중 대표자로서 15인을 열기기로 한다 하니 우리 측으로서도 동수의 대표자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일동은 그러면 우리도 15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기로 하자하고 그 자리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시 다른 목사를 권유하여 15인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⁴⁵⁾

그 무렵(2월 21일) 회합에 참석하고 있던 기독교 인사들은 이승훈과 이갑성, 오기선, 박희도, 안세환, 함태영, 현순, 오화영, 정춘수, 신흥식 등 10명 미만이었다. 이들 중 현순은 상하이로 파송될 예정이었고 함태영과 안세환은 대표로 서명은 하지 않고 ‘2선’에서 운동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표자를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이갑성이 경상도, 오화영이 개성, 신흥식이 평양, 정춘수가 원산, 김세환이 경기도와 충청도로 대표자 포섭을 위해 지방 여행을 시도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장로교의 경우 이미 이승훈에게 동참 의사를 밝힌 이명룡과 양전백, 유여대, 김병조, 길선주 등이 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감리교 경우엔 숫자를 채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미감리회의 박희도는 김창준과 박동완, 최성모를 포섭했고 최성모는 이필주를 포섭했으며 남감리회의 오화영은 신석구를 포섭했다. 그 결과 장로교 7명, 감리교 9명(미감리회 6명, 남감리회 3명)으로 기독교측 대표자가 확정되었고 그 때가 2월 27일이었다. 여기에 천도교측 15명과 불교측 2명을 합하여 총 33명의 ‘민족대표’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참여한 기독교 대표 16명은 다음과 같다.⁴⁶⁾

이름	출생연도 (나이)	출생지	입교 연도	소속교단	3·1운동 당시 직장 및 직책
길선주	1869(50)	평남 안주	1897	예수교장로회	평양 장대현교회 목사
이필주	1869(50)	서울	1903	미감리회	서울 정동교회 목사
김병조	1877(42)	평북 정주	1911	예수교장로회	의주 관리교회 목사
김창준	1890(29)	평남 강서	1907	미감리회	서울 중앙교회 전도사
양전백	1869(50)	평북 의주	1892	예수교장로회	평북 선천북교회 목사
유여대	1878(41)	평북 의주	1898	예수교장로회	의주 동교회 목사
이갑성	1889(30)	경북 대구	1900	예수교장로회	서울 세브란스병원 제약부 주임, 남대

44) “권동진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188.

45) “박희도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434.

46) 『三一運動秘史』;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편, 『삼일운동과 기독교 관련 자료집』 인물편(1-3권), 기독교대한감리회, 2017.

					문교회 집사
이명룡	1873(46)	평북 철산	1902	예수교장로회	정주 덕흥교회 장로
이승훈	1864(55)	평북 정주	1908	예수교장로회	정주 오산학교 설립, 오산교회 장로
박희도	1889(30)	서울	1904	미감리회	중앙YMCA간사, 영신학교 교감, 창의 문밖교회 전도사
박동완	1885(34)	경기 포천	1908	미감리회	<기독신보> 주필, 정동교회 전도사
신홍식	1872(47)	충북 청주	1904	미감리회	평양 남산현교회 목사
신석구	1874(45)	충북 청주	1908	남감리회	서울 수표교교회 목사
오화영	1879(40)	황해 평산	1906	남감리회	서울 종교교회 목사
정춘수	1874(45)	충북 청주	1904	남감리회	원산 상리교회 목사
최성모	1874(45)	서울	1908	미감리회	해주 남본정교회 목사

기독교 대표로 참여한 16명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8명(신홍식 이명룡 신석구 정춘수 최성모 김병조 유여대 오화영)으로 제일 많았고 50대가 4명(이승훈 길선주 이필주 양전백), 30대가 3명(박동완 이갑성 박희도) 20대가 1명(김창준)이었고 출신 지방으로 보면 평북이 5명(이승훈 양전백 유여대 이명룡 김병조)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3명(이필주 박희도 최성모), 충북 청주 3명(신홍식 신석구 정춘수), 평남 2명(길선주 김창준) 황해도 평산 1명(오화영), 경기 포천 1명(오화영), 경북 대구 1명(이갑성)이었다. 소속 교파나 교단으로 보면 조선예수교장로회 소속이 7명(길선주 김병조 양전백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으로 모두 미국 북장로회 선교구역인 서울과 평안도 지역교회 소속이었다. 남장로회 선교구역인 전라도와 호주장로회 선교구역인 경상남도, 캐나다장로회 선교구역인 함경도에서는 민족대표 참여자가 없었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미감리회 6명(이필주 김창준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최성모), 남감리회 3명(정춘수 신석구 오화영)으로 서울과 평양, 해주, 원산 등지에서 목회하던 목사와 전도사들이었다.

그런데 '민족대표'로 참여한 기독교측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3·1운동 당시 교회 공적인 조직의 고위직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장로교의 경우 과거에 총회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길선주 목사와 양전백 목사가 있었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지역교회 목사(유여대 김병조)이거나 평신도(이승훈과 이명룡, 이갑성)였다. 현직 노회장이나 총회장으로 민족대표로 참여한 인물은 없었다. 그리고 감리교의 경우도 최고 수장인 미국인 감독 아래서 지방교회들을 관리하던 감리사 중에도 민족대표 참여자가 없었다. 미감리회의 경우 1919년 3월 당시 한국인 감리사가 2명 있었는데 경성지방 감리사 최병헌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인천지방 감리사 오기선은 모의 초반에 참여했다가 운동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여 중도 이탈하였다. 결국 미감리회 대표는 지역교회 담임목사(이필주 신홍식 최성모)와 전도사(박희도 김창준 박동완)로 구성되었다.⁴⁷⁾ 남감리회의 경우도 3명(정춘수 오화영 신석구) 모두 지역교회 담임자였고 감리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이로써 보면 기독교측 대표자들은 당시 교회 조직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민족대표로 참여한 기독교 대표 가운데는 3·1운동 이전부터 민족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1907년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하여 민족계몽운동에 참여하다가 1911년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이승훈과 양전백, 이명룡을 들 수 있으며 길선주 목사도 그 맏아들(길진형)이 105인사건 때 옥중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와 함께 신민회를 조직했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상동파'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이필주와 최성모,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동학운동에 참여했던 신홍식 목사도 민족의식이 투철했다. 이들은 3·1운동 이전부터 '민족주의 목회자'로서 기독교계와 일반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다. 또한 초교파 연합 선교기관인 기독교청년회

47) <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18, p. 49.

(YMCA) 간사이자 장·감 연합학교인 영신학교 교감으로 봉직하고 있던 박희도, 장·감 연합 기독교계 언론인 <기독신보> 주필 박동완, 역시 장·감 연합 의료선교기관인 세브란스병원 약제사였던 이갑성 등을 통해 장로교와 감리교, 기독교계와 학생운동권 및 다른 종파 지도자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만큼 당시 기독교회는 다른 교파와 다른 교단, 다른 종파와 일반사회에 ‘열려’ 있었다.

3.3 민족대표들의 종교연대

이렇듯 기독교 대표들이 천도교 및 불교 인사들과 연대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심리적 갈등과 번민이 없지 않았다. 2월 20일 이승훈이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과 회합하여 기독교-천도교 연합방침을 확정한 후 기독교측 내부에 반발이 없지 않았다. 남감리회측 논의를 처음 시작했던 정춘수는 이승훈으로부터 “천도교와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천도교와 합동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것은 우리는 기독교 목사의 신분이므로 감정으로써 일을 하면 그것은 인도 정의에 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하려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합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기독교만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⁸⁾ 이런 주장을 한 후 정춘수는 원산으로 내려갔고 2월 28일야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주장과 달리) 천도교 및 불교 대표들과 함께 ‘민족대표’ 명단에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그가 3월 1일 저녁 서울에 도착한 후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2월 20일 이승훈과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의 회합에서 기독교와 천도교 연합으로 운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기독교측 내부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대목이 운동방법론에 대한 것이었다. 논의 초기부터 ‘독립선언론’으로 방향을 잡은 천도교측과 달리 기독교측 인사들은 개인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독교측 민족대표들의 입장을 분석하면, 독립선언론 입장을 취한 인사는 이승훈과 이명룡, 오화영, 신석구 등 4명이었고 독립청원론 입장을 취한 인사는 길선주와 양전백, 김창준, 이갑성, 박희도, 신홍식, 정춘수 등 7명이었으며 이필주와 박동완, 최성모 등은 입장이 불분명했다.⁴⁹⁾ 숫자로 보면 청원론이 우세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측 독립운동 논의는 월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이 문제를 논의할 파리 평화회의에 대한 소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은 파리 평화회의에 민족 대표를 파견하여 월슨 대통령과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열강국 대표들에게 “조선도 이번 기회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호소하는 동시에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일본 정부와 총독부, 의회에도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 달라.” 청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2월 초 상하이에서 파견된 선우혁을 만남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이승훈도 초기에는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2월 16일 평양 기흥병원에서 이승훈을 만난 길선주의 재판증언에서 확인된다.

“이승훈이가 나에게 대하여 정부와 총독부에 대하여 독립청원을 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고 말하였다. 나는 청원서에 명의를 내는데 승낙하고 인장을 보냈지 선언서에 대하여서는 찬성한다거나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말한 일이 없고 그 독립운동에 찬성할 뜻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승훈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였다.”⁵⁰⁾

이승훈은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독립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반 시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선언서를 인쇄, 배포하는 식으로 운동을 시작하였다. 길선주는 이승훈을 만나기 전에 이미 상하이에서 온 선우혁으로부터 “인민 대표가 정부와 총독부에 독립청원을 하면 독립을 허락할 것이며 타국에서도 이렇게 하여 독립을 하고 있으니 조선서도 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⁵¹⁾ 같은

48) “정춘수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550-551.

49)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pp. 237-238.

50) “길선주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121-122.

51) “길선주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116.

내용으로 참여를 원하는 이승훈에게 동참할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길선주는 후에 재판정에서 “나의 생각에도 총독부와 기타 당국에 제출할 청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런 줄로 생각하고 대표자로 명의를 기재할 것을 승낙하였다.”⁵²⁾고 진술하였다. 길선주는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청원론’ 입장을 고수하였다.

양전백도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그도 재판정에서 “함태영이가 [2월 27일] 이 선언서를 보일 때 비로소 피고는 그 취지에 찬성하였는가?”라는 판사 질문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 총독부에 청원하는 것은 큰일이므로 찬성하고 있었으나 선언서와 같이 적은 일에 대하여서는 오늘까지도 불찬성이다.”고 대답하였다.⁵³⁾ 이갑성도 2월 16일 자기 집에서 모인 기독교 대표자 회합에서 “선언서의 발표는 좋다고 생각하나 그 발표를 우리들 무자격자로서만 하게 되면 일반이 자격을 인정하여 주지 않을지도 모르므로 그럴 바에야 조선에 대하여 모든 권력을 가진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⁵⁴⁾ 천도교와의 합작을 반대했던 정춘수도 강력한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2월 20일 오전 박회도의 협성학교 사무실에서 모인 기독교 측 회합에서 “독립은 아직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독립을 하려면 다른데 간섭 없이 조선 사람만으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결이란 것을 이해하며 민족자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조선민족 자치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기타 조선 내의 각 사회단체 또는 각국 영사관에게도 그 일을 통지하자.”고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⁵⁵⁾ 이렇듯 논의 초기 단계에서 기독교 진영은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이런 기독교 측 입장은 천도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특히 2월 21일 최린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승훈과 함태영, 최린 등 3인 회동에서 운동방법론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최린은 천도교 측 방법론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허하여 줄 청원서를 제출하고 또 동일한 문서를 조선총독부와 의회, 정당 수령에게 보내며 한편 파리 강화회의와 월슨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주시를 희망하는 뜻의 탄원서를 송부하고 조선인민에게는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는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 최린은 천도교 측이 일본에 보낼 청원서와 국제사회에 보낼 탄원서도 준비하지만 가장 큰 의미는 민족사회를 향한 <독립선언서> 배포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⁵⁶⁾ 이에 대하여 함태영은 기독교 측은 청원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최린과 토론을 전개했다.

함태영: [기독교 측에서는] 정부에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려고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인민에게 배부할 생각은 없다.

최린: 정부에 청원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따름이므로 그런 것은 민족자결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으니 그대들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의 방법과 상위되니 그대들과 합동할 수 없다.

함태영: 그러면 독립선언서를 먼저 배부하는가 또는 정부에 대한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는가.

최린: 독립선언서 발표 당일 총독부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함태영: 독립선언서를 배부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과 다르니 다시 한 번 협의한 뒤 통지하겠다.

선언서와 함께 청원서와 탄원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천도교도 기독교도 모두 동의하는 바였다. 문제

52) “길선주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112-113.

53) “양전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262.

54) “이갑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291.

55) 이후 원산으로 내려간 정춘수는 2월 28일 서울을 다녀 온 광명리로부터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본 후 “나는 원래 민족자치의 청원에는 찬성했으나 이 독립선언서에 명의를 낼 것은 승낙한 일이 없는데 무슨 일로 이 선언서에 기재하였느냐?” 질문하면서 “선언서를 읽어보니 그 문장에는 일본에 대하여 반대하는 문구는 없고 온당하다고 하였으나 민족대표자 중에 나의 명의를 있으므로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았는데 어찌서 이렇게 빨리 33인 뿐으로 되었으며 또 어찌서 독립선언서라고 하였을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선언서는 이미 배포한 것이고 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상경하였다. “정춘수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550-551; “정춘수 신문조서(제2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삼일운동 I), 국사편찬위원회 1990, pp. 155-156.

56) “함태영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647.

는 선언과 청원 사이에 어떤 것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집중하느냐 하는 점이였다. 천도교측은 ‘선언’에, 기독교측은 ‘청원’에 무게를 두었다. 최린은 개인적으로 강력한 ‘선언론’ 주창자였다. 그는 이승훈과 함태영에게 “지금 독립운동은 월손씨가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독립운동이므로 독립선언 이어야지 독립청원은 의의가 없다. 독립운동은 현하 조선 안의 사회상으로서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전 민중을 총동원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독립운동의 일원화가 조선민족의 혼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역설하면서 기독교측도 ‘선언론’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⁵⁷⁾ 이런 최린의 호소에 이승훈과 함태영이 호응하고 기독교측 인사들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최린과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승훈과 함태영을 곧바로 안세환과 박희도를 불러 회담 결과를 알려 주며 “우리는 원래 독립선언서를 배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천도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던 것이지만 이 주장을 포기하고 천도교파의 주장대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자.”며 설득하였다.⁵⁸⁾ 특히 이승훈은 “천도교에서는 절대로 청원을 하지 않기로 한다 하므로 천도교와 합동한 이상 어쨌든지 독립선언을 아니할 수 없어 그 일을 결정하였다.”며 <독립선언서> 발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천도교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방법론 부분에서 기독교 쪽이 양보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선언서 발표와 함께 기독교측에서 추진했던 청원서와 탄원서도 함께 발표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향 전환(청원론→선언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탈한 기독교 인사도 없지 않았다. 오기선은 대표적이다. 그는 2월 20일 함태영 집 회합부터 논의에 참가했는데 “먼저 정부에 독립의 청원을 하여 그 희망을 얻은 후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청원론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2월 23일 “천도교와 합동하여 독립선언서를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결국 독립선언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⁵⁹⁾

기독교측이 주장했던 독립청원론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비폭력 운동노선에 바탕을 둔 것이였다. 독립선언론 입장에서 보면 청원론이 소극적이고 비굴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독립을 추구하려는 비폭력 방법론이었다. 특히 성경을 ‘절대 권위’로 인식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성경 구절을 근거로 (바람직하지 않은) 세속 권력에도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가르쳤다. 그런 배경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일본정부에 우선 “독립을 시켜 달라.”고 청원하고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과 파리 평화회의에 참가하는 열강국 대표들에게 “조선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호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일본정부가 허락하든 말든) “우리는 독립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일본의 무력 탄압을 불러올 뿐 아니라 두 민족 간의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었다. 천도교측에서는 처음부터 운동 원칙에서 ‘비폭력’을 표명하였지만 25년 전(1894년)의 ‘동학농민항쟁’을 기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는 천도교측의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털어낼 수 없었다.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천도교의 독립선언론은 ‘무장 투쟁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승훈이 2월 21일 회담에서 최린에게 “천도교측에서는 만주방면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는 풍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한 것도⁶⁰⁾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였다. 이런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측이 ‘선언론’으로 전환함으로 천도교와 기독교 연대는 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훗날 최린은 “우리 3인의 회합에서 의견이 일치된 것은 삼일운동의 근본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사항이였다.”고 증언하였다.⁶¹⁾ 이처럼 기독교측을 대표하여 천도교측과 협상하였던 이승훈과 함태영의 판단력과 지도력이 있었기에 종교간 연대는 유지될 수 있었다.

거사 일을 3월 1일로 정하는 과정에서도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8일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와 1월 22일의 고종황제 승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추

57) “최린 자서전”, p. 170.

58) “함태영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647.

59) “박희도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457-458; “이승훈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372.

60) “최린 자서전”, p. 170.

61) “최린 자서전”, p. 170.

진되었다.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리 평화회의에 민족대표를 파송하여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3월 3일로 예정된 고종황제 발인예식을 전후로 하여 서울에 몰려들 군중을 대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준비되었다. 우선 최린은 해방 후 증언록에서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게 된 철학적, 종교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예로부터 천시(天時), 지리(地理), 인화(人和)는 사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3대 요건이라고 하는 말도 있거니와 이러한 시기야말로 가위(可謂) 천여(天與)의 시기라 한 것이다. 둘째로 이 날은 조선 민족에 영원한 기원이 될 날이다. 이 운동은 조선민족의 성스러운 과업으로서 타일에 이 시일과 이 운동을 합쳐서 부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이 운동의 명사가 되는 것이라 이름이란 단체를 대표하는 말이므로 이름과 실체가 부합되어야 하는 법이다. 이제 3월 1일을 요약해서 부르게 되면 ‘삼일’이 되고 여기에다 운동을 더해 붙이면 ‘삼일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일’이란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철학적 용어로서 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말하자면 삼(三) 교단에 일체가 되어서 일으킨 운동이라는 의미도 되고 영토(嶺土) 인민(人民) 주권(主權)의 삼(三) 요건으로서 일(一) 국가가 성립된다는 의미로서 삼위일체가 부합되는 것이다.”⁶²⁾

그러나 이러한 최린의 진술은 해방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분히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19년 당시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대표자들이 이렇듯 종교·철학적 의미를 고려하며 ‘차분하게’ 거사일정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거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월 20일 이승훈과 함태영이 최린과 권동진, 오세창, 최남선 등 천도교측 인사들과 만나 기독교-천도교 연합으로 운동을 전개하되 ‘독립선언’으로 운동방법론을 확정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즉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대표자들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배포하는 시점을 잡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표자들은 자연스럽게 ‘배례(拜禮) 군중’이 많이 모이는 ‘국장’을 전후로 한 시기에 거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3월 1일로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천도교와 기독교측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박희도는 2월 20일 오전 자신을 찾아온 강기덕에게 “천도교와 예수교 연합으로 하되 국장 2일 전이나 2일 후가 될 것이다.”는 언질을 주었다.⁶³⁾ 그러나 그날 저녁 2월 20일 저녁 박희도 집에서 이승훈과 정춘수, 오화영, 박희도, 오기선, 신흥식, 이갑성, 안세환, 현순 등이 회합하여 논의하면서 “국장시(國葬市, 3월 3일)를 이용하여 선언서를 인쇄, 배포할 것”을 의논하였다.⁶⁴⁾ 그리고 하루 뒤인 2월 21일 저녁 이갑성 집에서 모인 기독교측 대표자 회합에서는 천도교와의 합작을 재검토하며 ‘청원론’으로 방향을 잡은 후 “청원서는 빨리 제출하여 국장 후 3월 4일에 그 일을 일반 인민에게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⁶⁵⁾ 이렇듯 기독교측 대표자들이 모일 때마다 거사 예정일이 바뀌었다. 그것은 운동의 성격과 방법론에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월 21일 이후 이승훈과 함태영이 기독교측 실무대표로 최린과 자주 만나 운동방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하면서 거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최린과 이승훈, 함태영 등은 거사일정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2월 25일 회합에서 “목하 강화회의 진행 중임으로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 국장 중이어서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모이게 되니 그 무렵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3월 1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⁶⁶⁾ 이승훈은 이 같은 결정을 그날 이갑성 집에서 모인 기독교 대표자 회합에서 밝혔다. 그 무렵 최남선이 작성하여 최린에게 전달되었던 <독립선언서> 원고본도 나와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대표자들에게 회람되어 읽히기 시작했다. 민족대표자들의 선언서 날인은 2월 27일 이루어졌다. 최린은 재판장에서 독립선언식을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거행하기로 결정한 과정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2) “최린 자서전”, pp. 173-174.

63) “박희도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437-438.

64) “신흥식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485.

65) “오화영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535.

66) “최린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581.

“문: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답: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시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발각될 우려가 있었고 또 이태왕의 국장 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3월 1일을 택했고, 장소는 파고다공원이 중앙에 있고 국장 때문에 시골 사람들도 다수가 들어가므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데 형편이 좋을 것으로 그곳을 골랐던 것이다.

문: 최초에는 3월 5일에 발표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그런 말은 없었지만 최초에 3월 2일이라는 설이 나왔으나 2일은 일요일로 예수교과의 형편이 나쁘다는 것으로 3월 1일로 했던 것이다.”⁶⁷⁾

위 진술에서 천도교측과 기독교측 논의 과정에서 한 때 3월 2일로 거사일로 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3월 3일(월요일) 국장일에 최대 인파가 몰릴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기독교측에서는 3월 3일 거사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종황제 발인예식이 거행되는 날 군중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국장 직후나 직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장 후는 ‘과장’(罷場) 분위기라 군중 동원이 쉽지 않았고 그렇다면 국장 하루 전에 가장 많은 인파가 서울에 몰려 들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국장 하루 전인 3월 2일이 일요일(주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예배에 전념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하루 더 당겨 3월 1일, 토요일을 거사일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종교적’ 요소, 특히 일요일을 ‘안식일’로 규정하여 세속적인 행사를 금하는 기독교 관습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도교나 불교측으로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3월 2일이 거사에 가장 적합한 날이겠으나 목회자들이 대부분인 기독교측 대표자들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였다. 이렇듯 3월 1일 거사일 결정도 종교간 타협과 양보의 산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3·1운동 모의과정에서 ‘종교간 연대’는 빛을 발하였다.

4. 기독교 민족대표들의 역사의식과 독립정신

4.1 <독립선언서>의 기독교적 해석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명의로 발표된 <독립선언서>의 본문은 천도교측 최남선이 기초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공약 3장’은 불교측 한용운이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기독교측 인사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 외에는 달리 참여한 것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독립선언서>를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없는 문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선, 2월 26일 <독립선언서> 초고가 마련된 후 천도교와 기독교 대표들 사이에 회담되었을 때 이승훈과 이갑성, 박희도를 비롯한 기독교 대표들도 그것을 받아 읽고 ‘동의해서’ 서명에 참여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등 서로 다른 종교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포괄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렇다고 <독립선언서>를 ‘종교적’ 요소가 전혀 없는, ‘정치적’ 성격의 문서라고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서명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이 모두 종교 대표자들이었던 만큼 문서의 내용과 표현에서 ‘종교적’ 색채를 떨 것은 당연하였다. <독립선언서>를 종교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찍이 그 점을 간파한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 전택부 총무는 생전의(1956년) 최남선 선생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무런 예비지식 없이, 또 아무런 편견 없이 3·1독립선언문을 읽는다면, 이 선언문은 종교적 사상이 가졌구나 할 정도로 종교적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데 당시 선생의 종교적 경향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다. 천도교 신자도 아니요 불교 신자도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당시 애국지사들은 대개 기독교인들이었던 만큼

67) “최린 신문조사”,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삼일운동 I), p. 23.

그들과 무시로 상종하는 가운데 저절로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의 감화가 있었습니까?”

“이승훈씨와는 오래 전부터 가까이 지내는 터로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요, 안창호 씨와는 더욱 그래서 내가 한때는 그의 비서가 되어도 좋다는 심정을 가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기독교 신자라고는 할 수 없다. 순기독교 신자 인물로는 전덕기라는 분이 있다. 그는 당시 상동교회 목사로서 열렬한 신앙가요 동시에 애국자였다. 나에게서는 그의 감화가 제일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상동교회 지하실에는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이회영, 이상설, 이준 등 지사들이 무시로 모여 국사를 모책했는데, 나는 그들만큼은 많이 끼지는 못했으나 늘 그 패에 낀 일이 있다. 진실로 상동교회 지하실이야말로 해아밀사사건의 온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에게서는 전덕기 목사의 감화가 크다.”⁶⁸⁾

최남선은 3·1운동 당시 손병희와 최린의 지휘를 받는 천도교측 인사로 활동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속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었다. 최남선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소년> 주필로 활동하면서 전덕기 목사를 비롯하여 안창호, 이승훈, 이회영, 이시영, 양기탁, 이동휘, 이준, 주시경 등 ‘상동파’로 불렸던 기독교인 민족운동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이들로부터 종교적,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⁶⁹⁾ 특히 남대문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민족목회와 독립운동을 병행했던 전덕기 목사로부터 받은 감화가 컸다. 그 스스로 “나에게는 전덕기 목사의 감화가 제일 많았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최남선은 사상적으로 일제말기 불교에 심취하였지만 3·1운동 당시에는 기독교에 ‘기울어져’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하였다. 그런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이었기에 그 본문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읽어내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을 필요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인 것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는 바이다. 5천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확고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⁷⁰⁾

<독립선언서>는 논리학의 ‘연역적’(演繹的, deductive) 방법론을 택하여 “우리는 독립한 나라, 자주적인 민족이 되었다.”고 선언한 후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우선 우리 민족이 독립국과 자주민이 된 근거를 (일본이나 서구 열강국의 허락이나 승인이 아닌) ‘5천년 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2천만 민중의 충성’에서 찾았다. 이어 나오는 ‘민족의 자유’와 ‘인류의 양심’, 그리고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란 표현 등에서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하늘이 내린 인간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 선언’은 ‘하늘(天)의 확고한 명령(明命)’과 ‘시대의 흐름(大勢)’에 호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하늘(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종교적 순명(順命)과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을 분간하는 신앙적 예지(叡智)를 읽을 수 있다. 민족 대표들은 3·1독립만세운동 논의의 배경이자 계기가 되었던 1차 세계대전 종결과 그에 따른 파리 평화회의 개최, 그리고 조선 봉건시대의 종말을 상징했던 고종황제의 승하를 ‘하늘의 섭리’가 담긴 “시대의 표적”(마 16:3)으로 보았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판단이 독립선언의 역사적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런 시대적 전환기에 ‘낡은 시대’의 ‘낡은 질서’가 붕괴될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68) 전택부, 『토박이신앙산맥 2』,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p. 109-110.

69) 이덕주, 『상동청년 전덕기』, 공옥출판사, 2016, pp. 21-22.

70) 1919년 3월 1일 반포된 <독립선언서> 본문은 오늘 읽기에는 난해한 국한문혼용 고어체로 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동안 여러 사람이 쉬운 문체로 번역한 것들을 참조해서 필자 나름대로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는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 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강제합병 이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사로잡힌 일본의 민족 차별적 통제와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 통치는 구시대의 ‘낡은 질서’와 ‘낡은 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새 시대’ 흐름 속에서 폐기 처분할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뀌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역사적 단정(端整)’의 과정이기도 했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운,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묵은 잘못(舊誤)을 바로 잡음(廓正)”은 종교(기독교)적으로 ‘회복’ 내지 ‘회개’라 할 수 있다. 그런 교정(회복)은 일본이 강제합병 후 한국에 취해 왔던 침략주의, 강권주의, 차별주의라는 ‘낡은 사상’, ‘낡은 질서’를 폐기할 때 이루어진다. 일본이 그런 잘못된(낡은) 정책을 포기하면 한국은 지난 ‘5천년 역사’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자주 독립국가’로서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두 나라 사이의 불행하고 불편했던 정치적, 외교적 관계도 바르고 평화로운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한국의 독립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중국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주축인 4억만 중국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불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동양평화’는 청일전쟁(1894년)이후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침략, 지배하면서 일본이 내세웠던 정치·외교적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추구한 ‘동양평화’ 정책은 한국을 강제 합병한 후 강권적 차별정책으로 억압 통제함으로써 한민족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정치·군사적 야욕이 노골화되면서 중국민의 불안과 공포심이 증대되었다. 결국 동

아시아 3국은 각기 탐심과 불만과 불안의 포로가 되어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독립은 '아시아 평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종교)대표들은 '독립을 넘어 평화'(peace beyond independence)까지 내다보았다. 3·1운동의 '궁극적 가치'를 평화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독립은 아시아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징조가 될 것이다.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과거 한 세기 동안 같고 닳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쓰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도다. 흑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 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 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흐름을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새 하늘과 새 땅(新天地)이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는 문장은 성경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는 문장과 흡사하다. 한국의 독립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계 21:4) ‘새 봄’의 도래를 의미하였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은 ‘신앙적 결단’과 ‘신앙고백’과도 같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도다. 남녀 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에 있는 광명을 향하여 매진할 뿐이로다.”

“온 세상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기쁨’(마 28:8)과 흡사하였고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는 표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12)는 말씀을 연상시키며 “다만, 앞에 있는 광명을 향하여 매진할 뿐이다.”는 문장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3)는 바울의 고백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독립선언서>는 그 내용은 물론 표현에서도 다분히 종교(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전택부의 증언대로, 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이 개인적으로 기독교, 특히 전덕기 목사로 부터 받은 ‘깊은 감화’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선교 30년 동안 형성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민족주의 신앙과 역사 의식, 독립정신이 3·1운동 당시 민족운동 진영에서 ‘보편적’ 진리와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민족대표로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국제 평화회의, 그리고 고종황제의 승하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한민족의 독립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하늘의 뜻’(天意)임을 깨닫고 그 일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4.2 재판정에서 드러난 독립의지

계획했던 대로 3월 1일 오후 2시, 이승훈과 이필주, 오화영, 양전백, 이명룡, 이갑성, 신홍식, 오화영, 신석구, 박희도, 김창준, 박동완 등 기독교측 대표자 12명은 종로 인사동 태화관(명월관) ‘별유천지 6호실’에서 천도교와 불교 대표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경무청에 연행되었다.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 장소를 처음 예정했던 탑골공원에서 태화관으로 옮긴 것이나 독립선언식 후 만세시

위를 벌이지 않고 곧바로 ‘자수 형태로’ 경무청에 연행된 것은 ‘종교인’으로서 폭력시위로 인한 희생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을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태화관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지 못한 기독교 대표는 길선주와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등 4명이었다. 기독교 대표로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길선주 목사는 2월 23일부터 황해도 장연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2월 27일 평양에서 내려온 안세환으로부터 3월 1일 거사 소식을 들은 후 2월 28일 장연을 출발하여 기차 편으로 3월 1일 저녁 서울에 도착, 곧바로 경무청에 자수하였다.⁷¹⁾ 원산에 있던 정춘수 목사도 2월 28일 서울을 다녀온 광명리를 통해 3월 1일 거사소식을 듣고 3월 1일 아침 원산을 출발, 기차 편으로 그 날 저녁 서울에 도착해서 몸이 불편하여 종교교회 오화영 목사 집에 머물러 요양하다가 3월 7일 경무청에 자수하였다.⁷²⁾ 유여대 목사는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의주 용운동교회 사경회를 인도한 후 3월 1일 오후 2시에 의주 서부교회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을 주도한 후 곧바로 의주 헌병대에 검거되었다가 신의주청을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⁷³⁾ 거사 준비단계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중국 및 만주 방면 연락책임을 맡은 김병조 목사는 3월 1일 유여대 목사와 함께 의주 만세운동을 주도한 후 경찰의 체포를 피해 평북 일대를 돌며 만세운동을 지도하고 3월 7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그래서 김병조 목사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체포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로 상해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김병조를 제외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2명과 선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만세운동 초기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기독교계의 함태영과 안세환, 김세환, 김지환, 천도교계의 현상운, 최남선, 송진우, 임규, 박인호, 노현용, 이경섭, 한병익, 김홍규, 청년학생계의 강기덕과 김원벽, 정노식, 김도태 등 17명도 함께 체포되어 함께 재판받을 받게 되었다. 이들 49명 가운데 예심이 끝나기 전에 옥중 순국한 천도교 대표 양한목을 제외한 48인이 병합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민족대표 48인’이란 칭호가 붙여졌다. 이들은 서울 남산의 경무총감부 유치장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은 후 3월 14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심문을 받은 후 1919년 5월 5일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 예심재판에 회부되었다.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나가시마(永島雄藏)는 3개월 심리 끝에 1919년 8월 1일, “피고들의 선동으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야기함에 이르게 한 사실로서, 형법 제7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에 의거, 고등법원 특별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판결하였다.⁷⁴⁾

이런 예심 판결을 접수한 고등법원 특별형사부는 8개월간의 심리 끝에 1920년 3월 22일, “내란의 교사(敎唆) 죄가 성립함에는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를 전복하며 또는 방토(邦土)를 빼앗으며 그 조헌(朝憲)을 문란하는 바의 목적을 달하는 것을 교사한 행위가 있다.”는 혐의로 ‘내란죄’로 바꾸어 경성지방법원을 관할 재판소로 지정하였다.⁷⁵⁾ 고등법원 형사부가 징역형으로 끝나는 보안법이나 출판법 위반이 아니라 사형이 가능한 ‘내란죄’로 죄목을 바꾼 것은 민족대표들이 예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개전(改愼)의 정’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강한 독립의지를 밝힌 것과 함께 3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만세시위가 폭력시위로 바뀐 때문이었다. 일종의 ‘괘씸죄’였다. 그렇게 해서 1920년 7월 12일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1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허헌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고등법원 특별형사부 판결문에서 “본건을 경성지방법원에 송치한다.” 하지 않고 “본건의 관할을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한다.”고 한 것을 두고, “경성지방법원이 사건을 다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를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피의자들과 함께 ‘불법적인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경성지방법원은 변호인측의 ‘공소불수리’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곧바로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올려 보냈다.⁷⁶⁾ 그리하여 민족대표 48인은 지방

71) “길선주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 119.

72) “정춘수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551-552.

73) “유여대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276-277.

74) “손병희 외 예심종결(1919년 8월 1일)”, 『삼일운동사 자료집: 삼일운동 재판기록』, 고려서림, 1973, pp. 11-13.

75) “손병희 외 예심”, <기독신보> 1920.3.31.-6.2; “손병희 외 고등법원 특별형사부 판결(1920년 3월 22일)”, 『삼일운동사 자료집: 삼일운동 재판기록』, pp. 13-28.

76) “최린 외 47인 공판”, <기독신보> 1920.7.14.-8.24.; “손병희 외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판결문(1920년 8월

법원 1심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정에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1920년 9월 20일, 옥중에서 투병 중인 손병희를 제외한 47명 민족대표들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경성복심법원 법정에서 77) 김병조를 제외한 기독교 서명대표 15인도 공개법정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배경, 감회와 심정을 숨김없이 밝혔다. 그 내용을 교계 신문 <기독신보>가 간략하게 취재 보도하였다.

우선, 교과를 초월하여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천도교측과 협상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총괄 지휘했던 이승훈에 대한 심문 내용이다.

“‘일한합병에 대한 반대이지?’ 하는 재판장의 심문에 대하여 피고는 도도한 열변으로 ‘자기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조선 독립을 희망할 것이니 어느 누가 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어느 누가 병합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 하였고 자기가 각 교파의 연락을 주장하고 스스로 예수교측의 운동을 맞혀 가지고 피고 이명룡, 양전백, 김병조, 길선주 등 각 유력자를 가입케 하였음을 진술하고.”⁷⁸⁾

다음으로 양전백 목사의 진술이다.

“십삼년 전부터 예수교회 목사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결코 민족자결을 주창한 미국 대통령의 말에 의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체크’ 민족에게 대한 태도를 보아 조선은 당연히 독립이 될 줄로 알았노라 하였으며.”⁷⁹⁾

이승훈, 양전백과 같은 평북노회 소속의 이명룡 장로에 대한 심문 내용이다.

“조선독립운동의 동기와 및 그의 감상에 대한 심문이 잇섯고 다시 독립운동과 및 선언서의 배포방법에 대한 심문이 잇섯으며.”⁸⁰⁾

다음은 길선주 목사에 대한 심문 내용이다.

“평양 기흥병원에서 이승훈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듣고 자기는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니 몸으로는 못하나 일힘으로는 참가하겠다 하였음을 진술하고”⁸¹⁾

다음은 기독교청년회 간사로서 서울에서 미감리회와 남감리회, 장로교 대표와 청년 학생 대표들을 연결하며 독립운동 실무를 맡아 했던 박희도 전도사에 대한 심문 내용이다.

“감리교의 목사로 ‘일한합방에 대한 불평이 잇고 조선독립을 희망한다.’ 하고 피고의 집에서 신홍식, 오기선, 이승환 등이 모혀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협의를 할 새 10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은 관계로 일본과 우방의 의를 돈독케 하고 또한 동지자 모집 등에 대한 두 가지 작정이 잇섯고 천도교 예수교 양교 합동에 대하여는 먼저 방법과 내용을 알리기로 하였다고 하고 다시 천도교에서 받은 돈 5천 원의 용처를 주문하매 상해 가는 노비로 현순에게 2천원, 일본 가는 노비로 안세환에게 7백원, 그 외 1백원, 2백원 등 동지자의 각지 출장비로 지출하였음을 말하고 학생 강기덕 김일벽 등과의 연

9일)”, 『삼일운동사 자료집: 삼일운동 재판기록』, pp. 28-38; 정광현, 『판례를 통해서 본 삼일운동사』, 법문사, 1978, pp. 8-9.

77)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9.29.-10.27.

78)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0.

79)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0.

80)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0.

81)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0.

락에 대하여는 상당한 전문학교의 학생임으로 자기의 계획한 운동을 그대로 만류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말하였다 하고.”⁸²⁾

다음은 세브란스병원 약제사로서 이승훈과 함께 서울에서 기독교계 실무 대표로 활약했던 이갑성의 심문 내용이다.

“합병을 반대하고 독립을 희망하며 무삼 필요로 일본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는가.’ 심문하매 ‘조선은 물론 독립이 되겠스니가 먼저 우방인 일본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슴이다.’ 하였고 예수교편의 선언서 배포는 자기가 맞혔슴을 자인하고 동지를 모집하라고 경상남도에 갔든 사실을 진술한 후.”⁸³⁾

배계학당을 졸업하는 아들 졸업식에 참가하기 위해 해주에서 올라왔다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최성모 목사의 심문 내용이다.

“야소교의 목사로서 ‘역시 조선 독립을 그윽히 바라든 터이라. 박희도에게서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듣고 자진하여 참가하였다.’ 하고 그 외에 선언식 당시의 광경에 대한 자세한 심문이 잇스매 이를 일일이 진술하였스며.”⁸⁴⁾

다음은 3개월 전에 공주읍교회에서 평양 남산현교회로 임지를 옮겼다가 평양 기흥병원에 위장 입원한 이승훈으로부터 독립운동 계획을 듣고 참여한 신흥식 목사의 진술이다.

“감리교회의 목사로 ‘일한합병에 대하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었더니 점점 압박이 심함을 좇차 독립 사상은 날로 더하여졌다.’ 하고 평양 기흥병원에서 이승훈을 만나 독립운동 계획을 듣고 이에 찬성 참가하였슴을 진술하고.”⁸⁵⁾

다음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김창준 전도사의 심문 내용이다.

“감리교 전도사로 ‘조선은 사천년 역사국이라. 이를 빼앗긴 것은 절통한 일이나 스스로 위로하고 잇는 한 편으로 그윽히 두 가지 기회, 조선민족의 독립심이 분발할 때와 조선민족의 실력이 충실할 때를 기다리고 잇든 중 박희도를 만나 독립운동 계획을 듣고 곧 찬성하였다.’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열렬한 웅변으로 조선의 독립할 이유를 도도히 진술하였스며.”⁸⁶⁾

다음은 기독교 대표자들에게 회합 장소를 내주었던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의 심문 내용이다.

“감리교 목사로 ‘일한합병에 대하여는 이것이 우리의 죄 값으로만 알고 이 죄가 다 없어질 때에는 조선이 다시 독립 될 줄을 생각하였더니 월손 대통령의 교서 가운데 민족자결주의에 의하여 었던 한 소약국이던지 독립을 얻을 수 잇다는 말을 보고 이때가 조선의 두 번 독립될 때로 깨다랐다. 그리하여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하고.”⁸⁷⁾

다음은 1년 전 개성에서 서울로 올라와 종교교회를 담임하며 정춘수 목사와 함께 남감리회측 모의를 처음 시작했던 오화영 목사의 진술 내용이다.

82)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83)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84)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85)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86)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87)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감리교의 목사로 ‘합병을 반대하고 독립을 희망하는가.’ 하는 심문에 피고는 열렬한 태도로 ‘4천년 역사를 가진 조선을 일조에 일본에게 빼앗기었거던 반대하는 회포와 독립코저 하는 희망이야 엇지 다 말하리오. 그러나 다만 시간문제이나 어느 때던지 조선은 반드시 우리의 조선이 될 줄 알고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생명을 보존하여 익어가는 조선 독립을 기다리고 잇든 차에 정춘수에게 독립운동 계획을 듣고 이에 참가한 것이라.’ 진술하고.”⁸⁸⁾

오화영 목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민족대표 가운데 가장 늦게 서명에 참여한 신석구 목사의 진술 내용이다.

“합병에 대한 불평과 독립에 대한 희망은 누구나 일방이니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노라.’ 진술하고 다시 오화영의 말을 듣고 운동에 참가하였스며 그 외에 선언서 배포에 대하여 몇 마디의 문답이 잇섯고.”⁸⁹⁾

원산에서 올라온 정춘수 목사의 진술이다.

“감리교의 목사로서 ‘사천년 역사를 가진 조선을 일코 엇지 분하지 안으리오. 어느 때이든지 다시 독립을 희망함은 정정당당한 일이라 다시 무를 필요도 없다.’ 하고 ‘박희도에게서 말을 듣고 스스로 자진하여 운동에 참가한 것이오 남의 권고를 드른 바는 아니라.’ 하였스며.”⁹⁰⁾

다음은 장·감 연합 신문 <기독신보> 주필이었던 박동완 전도사의 진술이다.

“기독신보사의 서기로 ‘조선 민족은 자존 자립의 정신이 있고 독립할 기회만 기다리고 잇던 터이라 물론 절대로 합병을 반대하고 절대로 독립을 희망하오.’ 라고 진술하고 그 외에 운동 참가의 경로와 선언 당시의 광경에 대한 몇 마디 문답이 잇섯스며.”⁹¹⁾

마지막으로 평북 의주에서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고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유여대 목사의 진술이다.

“장로교의 목사로 ‘독립에 대한 감상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잇섯노라.’ 하였스며 그 외에 독립운동에 참가한 경로와 운동방법과 선언 당시의 광경에 대한 자세한 심문이 잇섯고.”⁹²⁾

이상에서 <기독신보>가 보도한 기독교 대표들의 심문 및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1) 4천년 내려오던 역사와 문화, 강토를 일본에 빼앗긴 것을 억울하게 여기며, 2) 강제 합병 이후 한민족을 탄압하는 식민통치에 반대하면서도, 3) 나라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민족의 죄 값이라 여겨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 4)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으로 약소민족 국가들이 독립할 기회를 얻게 된 시대 상황에서, 5) ‘합병 이후’ 조선의 우방을 자처했던 일본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허락할 것으로 믿고, 6) 민족의 독립이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기독교 대표들 사이에 운동 방법론을 두고 ‘선언론’과 ‘청원론’ 사이에 이견과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조선의 독립’이라는 운동 목적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된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재판 석상에서 ‘확고한’ 독립의지를 밝힌 민족대표들에게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검찰은 1920

88)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89)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90)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91)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92) “손병희 외 48인 항소공판기”, <기독신보> 1920.10.27.

년 10월 12일 공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에 소요죄(騷擾罪)를 추가하여 이승훈과 최성모, 박동완, 신석구, 박희도, 이갑성, 김창준, 오화영에게 징역 3년, 신흥식과 양전백, 이명룡, 이필주, 정춘수, 유여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길선주에게는 무죄를 구형했다.⁹³⁾ 유독 길선주 목사에게만 무죄를 구형한 것은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소극적 참여 자세 때문이었다.⁹⁴⁾ 그리고 1920년 10월 30일 열린 경성복심법원 결심 공판에서 이승훈은 징역 3년, 이갑성과 김창준, 오화영은 징역 2년 6월, 신흥식과 양전백, 이명룡, 박희도, 최성모, 이필주, 박동완, 신석구, 유여대는 징역 2년, 정춘수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길선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길선주 목사를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 대표 14인은 선고 형량 외에 ‘미결 구류일수 360일’을 가산하여 실제로 받은 형량보다 1년 더 복역을 해야만 했다. 긴 투옥생활이 시작되었다.

4.3 옥중 체험과 신앙연단

그러나 기독교 대표들에게 감옥은 또 다른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였다. 민족대표들은 예심 종결이 이루어진 1920년 3월까지 1년 동안 경부중감부나 서대문형무소 독방에서, 때로는 고문과 악형을 수반한 조사와 재판을 받았다. 목회자가 대부분이었던 기독교 대표들에게 그런 독방 수감생활은 낯설고 두렵고 불안한 경험이었다. 그런 독방에 갇힌 기독교 대표들은 기도와 성경 읽기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신비 ‘환상이나 소리’를 동반한 신비체험을 하였다. 이필주 목사의 증언이다.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役事)하심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던 어느 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누군가내 귀를 두드리 는 것 같았고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을 구하라.’ 나는 깜짝 놀랐다. 머리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다. 감방 구석에 있는 변기통 외에는 마루 바닥이나, 벽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감방은 3평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다시 아까와 똑같은 음성이 들렸다. 나는 성경을 들고 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7 장 28절에 이르러 눈이 멈추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영이시니.’ 깜깜한 방안에 갑자기 환한 전깃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고 싶었다.”⁹⁵⁾

이필주 목사는 독방 안에서 ‘빛과 음성’ 체험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신앙

93) “조선독립선언사건의 공판 변론 가시”, <기독신보> 1920.10.20.

94) 길선주 목사는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피고는 금번 손병희 외 31인과 같이 조선독립선언을 한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독립선언을 한 것은 알지 못하고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조선 독립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을 청원한다 하므로 나도 이름을 낸 일은 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 등이 조선독립의 선언을 발표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는 질문에 “나는 국민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한 일이 없다. 청원할 것만을 위하여 청원을 하는 것은 어린 아해가 아버지에게 분가하는 문권(文券)을 내 달라고 의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허락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답하여 시종일관 ‘청원론’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피고는 금후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극도의 근안(近眼)으로 또 몸이 불편하여 금후에는 하지 않고 나는 정치상의 일에는 일체 관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복심법원 재판에서도 “독립선언을 한다는데 나가서 명의는 내지 않기로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피고는 독립선언을 하는 일은 독립청원에 부수된 것으로 알고 청원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는 질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승훈이가 나에게 대하여 정부와 총독부에 대하여 독립청원을 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고 말하였다. 나는 청원서에 명의를 내는데 승낙하고 인장을 보냈지 선언서에 대하여서는 찬성한다거나 찬성하지 않는다고나 말한 일이 없고 그 독립운동에 찬성할 뜻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승훈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길선주는 재판과정에서 <독립선언서>에 (안세환에게 말한) 도장을 찍은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로서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독립 청원론’과 다른 <독립선언서>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길선주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秘史』, pp. 111-122.

95) “Autobiography by Pilchu Yi”, Victorious Liv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 Tokyo: 教文館, 1933, pp. 156-157; 이덕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 (개정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p. 396.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런 식으로 길선주 목사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1년 7개월 미결수로 독방에서 “요한계시록만 8백독”을 해서 출옥 후 그의 부흥운동 주제가 되는 ‘말세론’의 기본 틀을 잡고 나갔다. 김창준 전도사도 예심종결 때까지 1년 간 독방에서 “몸은 괴로웠으나 영만은 삼층천(三層天)에 거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7백 번 읽고 산상보훈을 3백번 읽고 신구약 전체를 5차 통독하고 성경 주석을 7백 페이지 기록하며” 지냈다. 그는 후에(1946년)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경험한 신비체험을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의 조국, 하늘이 주신 나의 조국을 열심으로 생각하던 중에 하루 밤은 비몽사몽간에 한 목시를 받았으니 이는 나에게 한 나라를 줌이었다. ‘나라를 네게 주노니 너는 두려워 말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깨어보니 목시이었다. 그 때에 붓을 내어 하늘이 주신 나라의 국경을 그려보니 북으로 만주 흑룡강, 남으로 조선 부산, 서로 요하, 동으로 동해이었다. ‘이것은 네 조국의 땅이니 네게 주노니 받으라.’하였다.”⁹⁶⁾

출옥 후 김창준 목사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 중국 북만주지방으로 가서 선교와 목회 활동을 펼친 것도 감옥 안에서 받은 ‘목시’의 영향이었다. 기독교 대표 가운데 가장 많은 3년 형을 선고받은 이승훈의 ‘옥중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8년 전 105인사건 때 혹독한 고문과 2년 옥고를 치르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이승훈은 이번에도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혹독했던 조선인 옥졸의 학대”를 당하면서도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시련을 견뎌냈다. 그는 기독교인 수감자 가운데 가장 늦은 1922년 7월 21일, 만기를 1년 앞두고 가석방되었는데 취재자 나온 <동아일보> 기자에게 옥중 생활과 장래 계획을 담담하게 밝혔다.

“내가 감옥에 드러간 후에 한 일은 이천 칠백 페이지나 되는 구약을 열 번이나 읽었고 신약전서를 사십 독 하였으며 그 외 야소교에 관한 서적 읽은 것이 칠만 페이지는 될 터이니 내가 평생에 처음 공부를 하였소. 장래 나의 할 일은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바치어 교회를 위하여 일할 터이니 나의 일할 교회는 일반 세상 목사나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조선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려는 그 뜻을 받아 동포의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고자 하오.”⁹⁷⁾

이승훈 장로는 옥중에서 성경 통독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출옥 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 그가 말한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사역하는 일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조선 민족의 교육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었다. 그에겐 구원 받아야 할 세상과 동포사회가 곧 교회요, 사역 현장이었다. 그가 생애 말년에 제도권교회의 무기력한 신앙풍습을 떠나 무교회주의 신앙에 심취하게 된 배경이 이때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기독교 대표들에게 형무소 감옥은 신앙 훈련과 연단의 현장이었다.

기장 늦게 민족대표 서명에 참여했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굴하지 않은 독립의지’를 보여 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신석구 목사도 옥중에서 종종 ‘환상과 음성’을 듣고 보는 신비체험을 하였다. 특히 독립선언식 직후 경무총감부 독방에 수감된 지 2개월 만에(5월 26일)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천도교 대표 양한묵이 갑자기 별세하였는데 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독살 혹은 고문치사라는 소문이 감옥 안에 돌았다. 그 소식을 듣고 신석구 목사도 처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그의 해방 후 증언(1949년)이다.

“나는 그 말을 드를 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함을 경탄(驚歎)하는 동시에 스사로 도라보아 나도 어느

96) <김창준 자필 회고록>(1946).

97) “독립선언사건의 一人 최종으로 이인환씨 가출옥”, <동아일보> 1922.7.22.

때에 그 같이 될지 아지 못함을 생각하매 스스로 맹성(猛省)치 아니할 수 없어 세간(世間)의 모든 복잡한 사념(思念)을 다 포기하고 다만 묵도(默禱)하는 중 영혼을 예비하고 안저 있으니 감방이 나에게서는 천당 같이 아름다우며 자나 깨나 주님께서 늘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으며 말할 수 없는 환희중(歡喜中)에 잠겨 지냈다. 나는 40여 년간 신앙생활 중 그 시(時) 5개월간 독방생활(獨房生活)할 때 같이 깃봄의 생활을 한 때가 없다.”⁹⁸⁾

이후 신석구 목사는 그동안 묵회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기도와 묵상, 성경 읽기에 집중하면서 신앙과 영성의 깊이는 더했다. 또한 종종 ‘환상과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견책을 받았고 출옥 후 미래 목회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일반 감방으로 옮겨진 후에는 같은 감방에 수감된 청년학생 독립운동가와 일반 수감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신앙지도를 하는 ‘옥중 목회’도 경험하였다. 그는 그렇게 옥중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바를 종종 한시로 표현했다. 그렇게 지은 20여 편 한시 가운데 하나다.⁹⁹⁾

煌煌上帝鑑吾心 하나님 내 맘 환하게 살피시고
 百度千回鍊若金 금처럼 수십만 번 연단 하시네
 夢裏無憂能穩枕 꿈속에서 걱정 덜어주시니 잠자리 편하고
 胸中不愧可開襟 마음속엔 두려움 없어 웃고름 푸네
 丹衷一片惟知義 일편단심 원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
 白髮餘生最惜陰 백발의 남은여생 그늘짐이 애석하나
 晝夜盡誠祈禱意 주야로 정성 다해 기도하나니
 蒼生塗炭正如今 도탄에 빠진 백성 바르게살기를

이런 식으로 기독교 대표들은 형무소 감옥 안에서 신앙 체험과 연단을 통해 오히려 독립의지가 더욱 견고해졌다. 마치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감옥 안에서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과 사역 의지가 더욱 견고해진 것 같이(행 5:17-23, 12:1-10, 16:19-32, 24:24-27)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3·1운동에 민족대표로 참여한 기독교 대표들도 혹독한 옥중 생활을 거치면서 더욱 굳은 신앙과 독립 의지를 갖추고 출옥 후 미래 목회와 민족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였다.

4.4 출옥 이후 행적

그렇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재판을 받고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혹은 마포의 경성형무소에서 2년 이상의 옥고를 치렀던 기독교 대표들은 1921년 봄부터 풀려나기 시작했다. 우선 1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춘수가 1921년 5월에 출옥하였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이들 가운데 최성모가 제일 먼저 1921년 9월에 출옥하였고 두 달 후 11월 4일에는 박희도와 신석구, 이필주, 신홍식, 이명룡, 양전백, 박동완 등이 풀려났으며 이들 후 11월 6일에는 의주에서 체포된 유여대도 석방되었다. 그리고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던 이들 가운데 김창준이 가장 먼저 1921년 12월 22일 병으로 가석방되었고 오화영과 이갑성은 1922년 5월 5일 만기 출옥하였다. 그리고 제일 늦게 3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승훈이 만기 6개월을 앞두고 1922년 7월 21일 가석방 출옥함으로 모든 기독교 민족대표들이 석방되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들은 3·1운동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나 학교, 기관 단체로 돌아가 ‘중단되었던’ 사

98) <신석구 자필 자서전>, pp. 93-94; 한국감리교사학회 편, 『신석구목사 자서전』, 감리회본부교육국, 1990, p. 86.

99) <신석구 자필 자서전>, p. 101; 이덕주, 『신석구 연구』,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0, 141.

역을 재개하였다. 다음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의 이후 목회와 사회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¹⁰⁰⁾

이름	3·1운동 이후 경력과 행적		별세연도 (나이)	공훈포상 (포상연도)
	종교계	일반사회		
길선주	장대현교회 목회, 이항리교회 설립, 부흥운동 인도, 『만사성취』, 『말세론』 출간		1935 (66)	건국훈장 독립장(2009)
이필주	서강교회, 염창교회, 창천교회, 왕십리교회, 남양교회에서 목회		1942 (73)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김병조	상해 한인교회, 만주 패왕조, 화전자, 팔면통교회, 남만노회장, 용천 동상교회, 용천노회장 역임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외교위원장, 사료편찬위원, 『독립운동사략』 편찬, 해방 후 조선민주당 창당 참여, 반공단체 결성 혐의로 체포되어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	1950 (73)	건국훈장 대통령장(1983)
김창준	서울 중앙교회에서 목회, 미국 게렛신학교와 노스웨스턴대학 졸업, 미국 시카고한인교회 목회, 귀국(1926) 후 중앙교회 목사 및 감리교신학교 교수	신간회 참여, 해방 후 좌파단체 민족주의민족전선 참여, 남북협상차 평양을 방문했다가(1948) 북에 남아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기독교도연맹 의장, 북한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역임	1959 (69)	
양전백	선천북교회에서 목회	선천유치원 설립, 신간회 선천지회 총무	1933 (64)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유여대	의주 동교회, 신의주 백마교회 목회, 의산노회장	계몽서적 『면무식』 출간	1937 (59)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이갑성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이사, 신간회 중앙이사, 흥업구락부 참여, 중국 상해 망명(1933) 후 수차례 체포되어 해주, 평양, 함흥 경찰서에 투옥, 해방 후 독립촉성회 회장, 2대 민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 자유당 최고위원, 광복회 회장	1981 (92)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이명룡	덕흥교회 장로, 해방 후 서울 인왕교회 설립	물산장려운동, 정주 미곡통제조합 설립, 해방 후 조선민주당 고문, 삼일혁명동지회 창설, 이준기념사업회 회장	1956 (83)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이승훈	무교회주의 관계로 평북노회 장로 면직(1930)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 동아일보 사장, 조선기근구제회 위원장	1930 (66)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962)
박희도	서울 용두리교회 목회	<신생활> 창간 발행, 조선민립	1952	

100) 『三一運動秘史』;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편, 『삼일운동과 기독교 관련 자료집』 인물편(1-3권), 기독교대한감리회, 2017.

		대학 기성위원, <신생활> 필화 사건으로 2년 6개월 옥고 (1922), 수요구락부 창립, 중앙보육학교 설립, 협성실업학교 부교장, 신간회 중앙간사, 친일단체 시중회(時中會) 간사, 친일 잡지 <東洋之光> 창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및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으로 친일 활동, 해방 후 반민특위에 피체, 육군정훈학교 교수	(63)	
박동완	1928년 하와이 이주 후 와히아와한인기독교회, 카우아이교회에서 목회, <한인기독교보> 편집 겸 발행인,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선교부 이사장	<신생명> 주간, YMCA 중앙위원, 신간회 총무간사, 재만동포옹호동맹 조사위원, 조선교육협회 정치총회 평의원, 흥업구락부 창립발기위원, 하와이 한인협회 창립발기인, 동지회 와히아와지방 대표	1941 (56)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신흥식	인천 내리교회 목회, 원주 지방 감리사	흥업구락부 가입, 계몽서적 『장수옹』 출간	1939 (67)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신석구	원산, 고성, 가평, 철원, 인천, 천안, 진남포 등지에서 목회, 해방 후 서부연회장 역임	신사참배 문제로 천안경찰서 구금(1938), 전승기원예배 및 일장기 계양을 거부하고 용강경찰서에 구금(1945), 해방 후 반공비밀결사 결성 혐의로 체포되어 평양 인민교화소에서 순교	1950 (76)	건국훈장 대통령장(1963)
오화영	서울 수표교교회, 종교교회, 상동교회, 연화봉교회에서 목회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위원, 조선민흥회 창립준비위원, 중앙YMCA 회원부 간사, 광주학생사건(1929)과 흥업구락부사건(1938)으로 투옥, 해방 후 정계 투신, 조선정치대학 설립, 2대 민의원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 한국전쟁 중 납북, 재북평화통일촉진위원회 상무위원	1960 (81)	건국훈장 대통령장(1989)
정춘수	원산과 개성, 춘천, 서울에서 목회, 적극신앙단 가입, 기독교조선감리교회 3대 감독과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통리자, 해방 후 천주교로 개종	신간회 간사, 흥업구락부 사건(1938)으로 투옥되었다가 사상 전향 후 일제말기 대표적인 친일파 교계 지도자로 활약, 해방 후 반민특위에 피체	1951 (77)	
최성모	서강교회와 상동교회 목회, 만주와 동몽고 선교, 만주 대련교회, 천안교회, 예산교회에서 목회		1937 (63)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목회자들은 대부분 교회 목회로 복귀하였다. 석방 후 민족운동이나 사회활동과 거리를 둔 채 목회에만 전념한 목회자들로는 길선주와 이필주, 최성모 등을 들 수 있고 목회에 주력하면서도 민족주의 사회활동에 일정 부분 참여했던 목회자들로는 신홍식과 오화영, 신석구, 유여대, 양전백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해외에서 목회와 독립운동에 전념한 목회자로 김병조와 박동완, 김창준 등이 있으며 평신도 출신인 이승훈과 이명룡, 이갑성 등은 민족주의 사회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했던 박희도와 정춘수가 1930년대 후반 이후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친일 행각’을 보인 점이다. 이 두 사람은 일제말기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친일파’ 지도자로 활약하였고 그로 인해 해방 후 기독교계 뿐 아니라 일반사회로부터도 ‘실패한 민족운동가’, ‘민족 반역자’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 대표들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 유공자 포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애국지사에게 공훈 표창을 시작한 1962-63년에 이승훈과 이필주, 최성모, 이갑성, 신홍식, 유여대, 양전백, 박동완, 이명룡, 신석구 등이 건국훈장을 받았고 해방 후 시베리아 강제노동교화소에 수용된 후 생사불명이 되었던 김병조가 뒤늦게 1983년 포상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가 전쟁 후 ‘피동적으로’ 북한 정권 요구에 응했던 오화영도 1989년 포상을 받았으며 민족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던 길선주도 오랜 논란 끝에 2009년 포상을 받았다. 결국 아직까지 포상을 받지 못한 기독교대표는 일제말기 ‘친일파’ 인사로 전락한 박희도와 정춘수, 그리고 해방 직후 자진 월북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협조했던 김창준 등 3명이다. 이런 민족대표들의 사후(事後) 행적의 ‘명암’은 “신앙 양심이든 민족 의지든, 그것을 갖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5. 맺음 글: 교회 지도자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

지금까지 3·1운동 독립선언서 서명한 기독교 대표 16인의 활동과 행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3·1운동 당시 절대소수 종교였던 기독교가 독립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가 비록 소수 종교였지만 독립만세운동 준비 및 투쟁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기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경건과 실천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16인 기독교 대표의 절대다수(13명)는 목사 및 전도사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다수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부흥운동에 이르는 초기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운동’(Religious Awakening Movement) 기간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신학 훈련을 받았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의미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개로 시작해서 중생(거듭남)과 성화(성결)로 이어지는 기독교 구원의 본질을 체험하였다는 점이었다. 부흥 집회 때마다 나타났던 공개적인 통회 자복과 회개는 이웃에게 입힌 죄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개종 전에 남의 것을 횡령했거나 절도한 것을 기억하고 금전적으로 주인에게 보상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양심전(良心錢) 운동’은 교계는 물론이고 일반사회에 적지 않은 감동과 반향을 일으켰다.¹⁰¹⁾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던 한국 교인들을 종교적으로 ‘정화’(淨化, Purification)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초기 부흥운동 기간 중에 통회 자복과 회개를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회개의 열매’(눅 3:9)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실천했다. 부흥 사경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토론을 거쳐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인 기준’(Moral Stand)을 제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¹⁰²⁾ 그렇게 교인들

101) 하리영, “조선의 처음 남감리교인 중 1인이 되는 윤성근”, <신학세계> 1918.11; 양주삼 편, 『조선남감리교회 삼십년기념보』, 조선남감교회 전도국, 1929, pp. 53-54; 임동순, “충청남도 공주 하리동교회 부흥한 결실”, <신학월보> 1907.5, p. 125.

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로 규정한 행위에는 간음과 절도, 횡령, 거짓말과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들이 포함되었지만 이 외에 축첩과 노비제도, 인신매매, 조혼, 술과 담배, 아편 같이 기독교 선교 이전 조선사회에서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폐습과 악행들도 새로운 죄목으로 선정되어 기독교인들의 금기(禁忌) 행위로 규정되었다. 이런 교인들의 '청교도적'(Puritanic) 윤리 실천은 불신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우월감과 존경심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 밖' 일반 사회로 파급되어 나갔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때 회개하고 부흥사로 활약한 정춘수 목사와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를 비롯하여 그 여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회자가 된 신석구와 신홍식, 오화영, 이필주, 유여대 등 '도덕적 완전'을 추구하였던 목회자들이 독립운동에서 민족대표로 활약하게 된 배경이다.

둘째, 복음주의 신앙에 바탕을 둔 민족구원 의식과 실천이다.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초기 선교기간(1885-1910년)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려고 침략하던 시기와 일치하였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한반도 침략을 노골화한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빼앗기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노선과 방법으로 항일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기독교인들은 1896년 서재필과 윤치호가 조직한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충군애국'(忠君愛國), '민족자강'(民族自強)으로 대변되는 민족의식을 표출하였고 독립협회 해산 후에는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조직을 통해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은 구국기도회(救國祈禱會)로 시작해서 '을사5적'을 비롯한 친일파 척결 모의, 순국자결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밀사건과 정미조약 체결, 구한국 부대 해산에 따른 항일의병운동 기간 중 강화와 이천, 천안 등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족저항운동 혐의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희생되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를 중심한 서북지역의 기독교 민족운동 진영과 서울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상동파' 민족운동 진영이 1907년 조직한 항일비밀결사 신민회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항일 민족저항운동의 구심점으로 국내외 민족운동 세력의 연대를 이끌어냈다.¹⁰³⁾

이런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와 희생을 목격한 일반 시민사회는 기독교를 '나라를 위한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11년 일제가 신민회를 비롯한 항일 민족운동 진영을 척결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 105인사건을 꾸렸을 때 수 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악형을 받고, 1백여 명이 수감되거나 옥사하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는 '민족의 수난 현장에서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종교'로 각인되었다.¹⁰⁴⁾ 그 결과 "잃은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민족운동 진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런 배경에서 105인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승훈과 이명룡, 양전백, '상동파' 민족운동에 가담했던 최성모와 이필주 등이 3·1운동 민족대표로 이름을 올렸을 때 기독교계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지지와 참여를 표하였다. 이는 곧 기독교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영혼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과 사회의 정치·사회적 개혁과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성화'(Social Sanctification)의 실천이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와 투쟁을 통해 초기 한국 기독교회는 강력한 항일 '민족주의' 성격과 기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3·1운동 때 기독교는 '교회 경계를 넘어' 일반사회까지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셋째,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을 기반으로 한 종교연대이다. 앞서 살펴 본 감리교 인천지방 감리사 오기선 목사의 경우처럼, 3·1운동의 모의 단계에 참여했다가 운동방법론에서 청원론과 선언론 사이의 이견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는 기독교 외에 천도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연대하는 문제로 운동대열에서 이탈한 이들도 없지 않았다.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지닌 목사들은 목회자의 정치참여와 신조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연대에 대한 교리적, 신학적 고민이 없지 않았다.

102) J.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The Korea Mission Field, Aug. 1907, p. 116.

103)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적 성격",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 141-145.

104) 선우훈, 『민족의 受難』, 애국동지회, 1949;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2, 11-57.

신석구 목사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는 오화영 목사로부터 민족대표로 참여할 것을 권유받은 후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상용(相容)키 난(難)한대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는 문제로 “새벽마다 기도하던 중” 2월 27일 새벽에 “사천년(四千年)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代)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대 차질 기회에 차져보라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직각(直刻)에 뜻을 결정한 후” 서명에 참여하였다.¹⁰⁵⁾ 신석구에게 3·1운동 참여는 정치적이거나보다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종교적 신념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석구 외에도 이승훈과 유여대, 신흥식, 김창준, 박희도 등 다른 기독교 대표들도 재판과정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유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등으로 설명했다. 여기서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정치참여가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⁶⁾ 그리고 이런 종교적 신념과 결단에 근거하여 기독교 대표들은 종파와 교파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종교간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대화와 타협은 종교적 희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신석구 목사가 ‘종교적 신념’으로 독립운동 참가 의사를 밝히자 주변에서 “시기상조다. 일본이 쉽게 독립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다.”며 만류하였을 때 그는 “나도 이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독립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간다.” 하면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말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은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독립정신을 심을 것이다. 설혹 친구들 마음에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3남매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 주리니 이만 하여도 만족하다.”고 진술하였다.¹⁰⁷⁾ 결국 신석구는 ‘말일의 정신’(요 12:24)으로 “죽기 위해” 3·1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런 ‘희생적’ 자세가 민족대표로서 신석구의 권위와 지도력을 높여 주었음은 물론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천도교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냈던 이승훈의 권위와 지도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훈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여러 차례 결렬될 위기를 극복하고 종교간 연대로 3·1운동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후 준비단계의 막바지에 이른 2월 26일, 한강인도교 근방에서 기독교 대표자들의 회합이 이루어졌다. 박희도와 안세환, 오화영, 이필주, 최성모, 함태영 등 참석자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 33인 명단과 그 순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질서와 순서를 중시하는 ‘봉건적’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천도교와 불교, 기독교 대표자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인쇄할 것인지는 예민한 문제였다. 더욱이 기독교 대표자들은 장로교와 감리교로 나뉘고 다시 감리교 대표자들은 다시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나뉘어 종파와 교파, 교단 간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회합 참석자들이 민족대표 33인 순서 문제를 두고 합의의 도출하지 못하여 ‘어색해 진’ 상황에서 뒤늦게 회합에 참석했던 이승훈은 회장 분위기를 이내 파악한 후,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 하고 일갈하였다.¹⁰⁸⁾ 이승훈의 말 한 마디에 꼬였던 문제는 순조롭게 풀려나갔다. 이런 기독교측의 서명 원칙에 천도교와 불교측도 동의하였다. 그렇게 해서 <독립선언서> 마지막 부분의 ‘조선민족 대표’ 명단은 천도교 대표 손병희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장로교 대표 김선주, 감리교 대표 이필주, 불교 대표 백용성을 쓴 후 나머지 29명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¹⁰⁹⁾ 나이로 보나, 독립운동 전력으로 보나, 3·1운동 준비단계에서 보여준 역할로 보나 이승훈은 다른 어떤 대표들

105) <신석구 자필 자서전>(1949); 이덕주, 『신석구 연구』,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pp. 107-108.

106)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 246-247.

107) <신석구 자필 자서전>(1949), p. 88; 이덕주, 『신석구 연구』, pp. 109-110.

108) 김기석, 『위대한 한국인, 남강 이승훈』, 한국학술정보, 2005; 남강문화재단 편, 『남강 이승훈과 민족운동』, 남강문화재단, 1988; 한규무, 『기독교 민족운동의 영원한 지도자 이승훈』, 역사공간, 2008.

109) <독립선언서>에 인쇄된 조선민족 대표 명단은 한문으로 표기되었지만 이들의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 장로교의 김선주, 감리교의 이필주를 넣은 후 기독교 대표자들은 김병조, 김창준, 량전백, 유여대, 리갑성, 리명룡, 리승훈,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순으로 배열하였다.

보다 앞머리에 이름을 올려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은 기독교가 먼저, 자신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자칫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종교연합운동으로서 3·1 운동의 마지막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3·1운동 기간 중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영적 권위’(Spiritual Authority)와 그것에 근거한 ‘사회적 지도력’(Social Leadership)이었다. 종교적 경건과 실천에 기초한 영적 권위가 복음주의 신앙에 근거한 민족구원으로 연결될 때, 기독교는 교회 영역을 넘어 종교연대와 사회연대를 이룰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출선하는 양보와 희생이 교회의 대(對) 사회적 영향력과 지도력은 향상된다. 목회자와 교회의 권위와 지도력이 밀바닥까지 추락한 오늘의 기독교와 사회 현실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권위와 지도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이 3·1운동 1백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신앙 선배들의 행적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